

‘한 사람’ ‘광인’ ‘제자훈련’... 옥한흠 목사의 유산과 한국교회

은보포럼, 고인의 16주기 맞아 세미나 개최

고(故)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의 목회 유산을 재조명하는 16주기 기념 세미나가 8월 31일 오후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 드림센터에서 열렸다. 은보포럼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은보가 남긴 유산과 오늘의 목회’라는 주제로 열렸고, 박응규 교수(아신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발제를 비롯해 현장 목회자 4인의 토론과 패널토의를 통해 제자훈련의 본질이 현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다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응규 교수(아신대)는 옥한흠 목사를 20세기 후반 한국교회의 구조적 병리 현상을 진단하고 성경적 본질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친 ‘신학적 목회자(Theologian-Pastor)’이자 ‘교회 갱신의 선구자’로 조명했다. 그는 옥 목사의 삶과 목회 철학을 단순한 위인전이 아닌 역사신학적 비판과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 기독교의 지형도 안에서 정밀하게 입증하고자 했다.

박 교수는 옥 목사의 호인 ‘은보(恩步)’에 대해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도받았음을 고백하는 개혁신주의적 자의식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인(狂人)’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미친 사람이라는 목회적 철학으로, 바울의 고백에 뿌리를 둔 이 미집은 세속적 야망이 아닌, 성도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자기 비

움과 거룩한 열정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그는 옥 목사의 신학적 기반을 ‘개혁(파)적 복음주의(Reformed Evangelicalism)’로 정의하며, “종교개혁의 5대 솔라(Sola·오직) 원리를 설교와 목회 행정 전체에 내재화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인간의 공로나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 은혜에 있음을 명확히 선포했다”라고 평했다. 아울러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Sanctification)’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옥 목사의 설교에 대해 “성경 본문의 역사적, 신학적, 문맥적 맥락을 철저하게 파고드는 강해설교이자, 설교자 자신이 본문 앞에서 몸부림치고 회개하며 얻은 메시지를 회중의 가슴을 치고 양심을 깨우는 성육신적 적용으로 전달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1980~1990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 이면에 숨겨진 참모임증과 기복주의 신앙, 기업주의 위선 등을 강단에서 서슴없이 비판하는 제레미아드(Jeremiad)적 설교의 정수를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 “설교와 제자훈련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동전의 양면이었으며, 대형교회가 수만 명으로 성장했음에도 수지와 규모를 자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맨 앞줄 오른쪽부터 백성훈, 김명호, 이찬수, 이상갑, 박응규, 김인성 목사. ©은보포럼

랑하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는 목회를 실천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2003년 만 65세의 나이로 조기 은퇴하며 세습을 거부하고 신학적·목회적 비전을 공유한 후임자에게 담임목사직을 이양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끝까지 도덕적 표상이자 아름다운 은퇴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옥 목사의 2007년 평양대 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설교에 대해 “축사와 자랑 대신 극심한 통곡과 공개적 회개를 선택하여 한국교회의 도덕적 추락과 세속화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먼저 돌린 선지자적 통회의 정수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함이 없는 한국교회 회원론적 도덕 불감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21세기 한국교회 갱신을 향한 역사적 이정표를 남겼다”라고 덧붙였다.

《옥한흠 평전》에서 박응규 교수는 옥

한흠 목사의 사역을 총평하며 “옥한흠 목사는 새로운 신학 시스템을 창조한 신학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역사와 성경 속에 이미 존재했으나 세속화와 타성으로 인해 묻혀 있던 ‘평신도의 정체성’과 ‘제자화의 대서명’을 재발견하여, 그것을 목회 현장에 완벽히 구현해 낸 ‘실천적·신학적 목회자’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날의 과제와 관련해 “옥한흠의 제자훈련을 단순한 교재나 프로그램, 스킬로 이식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 뒤에 숨겨진 목회자의 눈물과 피, 눈물겨운 자기 쇄신과 헌신이라는 영적 진정성을 계승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갑 목사(산본교회)는 한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해 목회자 자신이 먼저 복음과 훈련에 온전히 미쳐야 한다는 옥한흠 목사의 ‘광인론’의 핵심 정신을 되짚었다. 그는 “옥 목사는 목

회 현장에 깊이 스며든 세속화와 효율성 중심의 물량주의를 강하게 경계했다. 이처럼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세련된 시스템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철저한 자기 비움과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열정만이 교회를 살리는 가장 본질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백성훈 목사(이름없는교회)는 3040세대 맞춤형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적용을 소개했다. 백 목사는 “신도시 3040세대가 마주한 육아, 맞벌이, 높은 이득성, 약화된 소속감, 여가 문화라는 5가지 현실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세대통합 제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메시지와 지식 탐구에 집중하게 된 성도들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기존 1년 과정을 10주 단위로 분절하는 모듈화 전략과 평생 수강권 제도를 도입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했다.

또한 “동시에 교리반을 신설하고 새가 족반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자유로운 질문을 장려하는 변증적 접근과 ‘새기고 캠프’를 통한 다음 세대로의 확장을 시도했다. 다만 분절형 훈련이 가지는 변화의 한계를 인식하며, 깊이 있는 제자훈련은 결국 지속적인 시간과 관계 안에서 완성된다는 1년 과정 원안의 중요성을 재발견했다”고 했다.

김인성 목사(함께하는교회)는 ‘한 사람을 향한 관심에서 흘러나오는 창의적 목회 사역’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교회의 숨겨진 엔진인 ‘사도성’을 강조하고 평신

도들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미션널 처치’ 실천 플레이북을 제시했다. 그는 “목회자는 성도를 훈련시키는 코치이며, 실제 성화의 무대이자 사역의 필드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1년 이상의 훈련을 통해 단단한 영적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열매로서 제자훈련을 받은 집사들이 목적헌금으로 청년 창업 기금을 조성하고, 개인 장비를 투자해 청년들을 영상 PD로 자립시키며, 철저한 수익 중심의 장로가 100%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비즈니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창의적 사역(Creative Ministry)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정규 목사(시광교회)는 ‘옥한흠 목사와 나의 목회’라는 주제로 후배 목회자의 관점에서 체화한 옥한흠 목사의 목회 철학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이어 “첫째, 대각성 전도집회와 같이 영혼을 출산하는 지속적인 전도와 결합되지 않은 제자훈련은 ‘울리는 팽과리에 불과하다’며 “둘째, 교역자에게 구원의 간격과 은혜가 따르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자 비참사태”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셋째,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닌 죄인들의 통화와 자복을 이끄는 성령의 주관적인 갱신 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넷째, 제자훈련은 환경의 유희리를 따지는 실용의 문제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목회의 본질이다. 옥 목사의 치열한 ‘한 사람’ 철학을 평생의 영적 이정표로 삼겠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법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1년, 청탁금지법 위반 1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

선교타임즈 “오직 믿음으로 지나는 30년” 7면

백지영·김조한 등 ‘시편 25편 One Wish’ 발매 24면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쯔개기 후원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와 관련,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 총재가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선 특정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한 총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곧바로 구급하지는 않았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보 전

비서실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6개월,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윤 전 본부장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지원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정치자금법과 청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 정책과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교인들이 낸

자금을 그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법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액상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회개와 성령으로 일어나 민족복음화를” 오산리서 회개기도대성회 열려

민족복음화 인천본부·파주DMZ·운동본부 주관으로
8월 24~29일 진행돼
하루 4차례 집회...라건국·박용배·임인기·권계현 목사 등 강사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위해 회개와 성령 충만 강조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위한 회개기도대성회가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 기도원에서 열렸다.

(사)민족복음화운동 인천본부와 파주 DMZ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회개와 성령 충만, 민족복음화와 영적 대각성을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연합성회로 진행됐다.

특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를 성회 주제로 내걸고, 2027년 추진되는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전국적인 회개기도운동의 불씨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6일간의 성회를 통해 목회자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한국교회의 회복과 다음세대, 민족복음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회 대회장단에는 임인기박용배라건국·권계현 목사 등이 참여했으며, 진행위원장 한정관 목사, 운영위원장 배미령 목사, 준비위원장 엄태오 목사, 실무위원 안재홍 목사, 실무위원 이준남·홍철웅·김선강·곽영민·김영애·한경수·최영하·백사랑·정영순 목사 등이 성회를 섬겼다. 또 김영돈 목사가 사무총장을 맡아 성회 진행을 지원했다.

대회장 라건국 목사(복음영광교회)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위한 회개기도대성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 인천본부

이번 성회에 대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과 성령의 충만은 항상 회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 회개는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가난하고 낮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신다”라고 전했다.

라 목사는 “한국교회가 먼저 마음을

돌아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민족복음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오산리 회개기도대성회를 통해 일어난 회개와 성령의 불길이 인천과 파주DMZ를 넘어 전국 교회로 확산되고, 2027년 8천만 한민족을 복음으로 품

는 민족복음화의 거대한 물결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성회 기간 매일 새벽 6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오후 7시 등 하루 네 차례 집회가 진행됐다. 특히 경건과 신유, 성령대방, 문제해결이라는 네 가지 주제의 집회로 구성됐다.

새벽 ‘경건의 시간’에는 신동석·반영훈·우원식·최진웅·김현동·장재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오전 ‘신유의 시간’에는 라건국·함덕기·이영훈·윤광환·김택겸·정대원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오후 ‘성령대방의 시간’에는 임인기·고천복·손보라·권계현·박용배·황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저녁 ‘문제해결의 시간’은 백사랑·정영순·유병삼·김명화·배미령·김종덕 목사가 각각 인도했다.

성회 강사들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외형적인 행사보다 철저한 회개와 기도,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다. 또한 회개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하며 성령 충만을 통한 삶의 변화를 소망했다.

대회장 박용배 목사(316교회)는 “성령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이제 한국교회와 회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복음으로 민족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복음화 인천본부 사무총장 김영돈 목사는 “이번 성회는 인천과 파주 DMZ 지역의 복음화운동이 전국적인 민족복음화운동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회를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영적 준비와 정으로 삼아 지역본부와 교회, 기도원 및 교계 지도자들의 연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제주AI세계선교센터, ‘크리스천 AI 선교 과정’ 첫 교육

목회자·크리스천 25명 참여해 복음송·아바타·다국어 선교영상 직접 제작

제주AI세계선교센터가 지난 8월 29일 스천 AI 선교 과정: 복음송과 선교 영상 주 전역과 서울에서 목회자와 크리스천 25명이 참여해 AI를 복음 전파와 세계선

교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번 과정은 생성형 AI 시대에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AI를 선교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해 복음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작성하고 작곡하는 것을 비롯해 AI 아바타 복음송 영상과 선교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특히 해외 선교를 위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 실습에서는 하나의 복음 메시지를 영어, 우크라이나어, 태국어 등 여러 언어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AI를 활용하면 언어와 지역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직접 확인했다.

교육에는 현성길 목사, 김관진 목사,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심현수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원장, 차경환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부원장, 장명선 제주AI세계선교센터장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한 수강생은 “복음송 만들기, 아바타 영상 만들기, 선교 동영상 만들기, 해외 선교용 다국어 동영상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짧은 시간에 갖출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종배 제주AI세계선교센터 공동대표는 “AI는 선교의 본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멀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선교 도구”라며 “목회자와 선교사, 크리스천들이 AI를善用해 제주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복음을 전하



제주AI세계선교센터의 제1차 ‘크리스천 AI 선교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AI세계선교센터

도록 실천적인 AI 선교 교육과 콘텐츠 제작 사역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AI세계선교센터는 “AI를 도구로, 세계를 선교지”라는 비전 아래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3일에는 제주성안교회에서 제주 기독교계 및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과 함께 ‘AI와 기독교’를 주제로 대주제로 ‘기독교인 AI를 개조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외부 정보 알리는 대북방송·전단 살포 재개해야”

살롬나비 논평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살롬나비)이 최근 논평을 내고 정부에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살롬나비는 “대북방송과 전단은 폐쇄된 북한 주민의 외부 세계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의 자유와 알 권리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방송과 전단은 단순한 소리 전이나 대북상황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편적 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과 시민의식을 개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방송 중단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 긴장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북한이 이에 상응해 대남 적대 행위와

도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할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방송은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수단이자, 남한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무력 충돌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보복 카드”라며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안보자산과 레버리지를 남한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다.

살롬나비는 정부가 대북방송 중단을 지속하려면 북한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 침범과 철책도로 건설 등 이른바 ‘DMZ 무력화 작업’의 중단과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북방송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동해선경의선 등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의 폭파 구간 복구 및 비군사화 약속, 핵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공식 선언 등을 요구했다.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2025년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참된 실상을 알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단지를 살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살롬나비는 “정부가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전단지 살포를 막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북한 구금시설 고문 피해 탈북민,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북한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조정민 판사는 지난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 축회 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상 북한의 대표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기재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북한 측에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 대표는 1997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여러 차례 강제북송됐다. 그는 2008년 북한으로 송환된 뒤 함

경북도 온성 보위부와 도 집결소, 청진 수 남구역 보안서 등에서 약 5개월간 구금됐다고 주장해 왔다.

최 대표는 구금 기간 성폭력과 폭행,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대표를 대리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I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용국 기자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제34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개최... 105명 작가 517점 출품

한국미술인선교회, 제18회 회원전 개최예배와 시상식 진행

한국미술인선교회(회장 안태이)가 8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사동마루아트센터에서 제34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을 개최한다.

최근 인사동마루아트센터에서 제18회 한국미술인선교회전 개최예배 및 제34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예배는 안태이 회장의 사회로 드려졌으며 방효성 고문(한국미술인선교회 제1대 회장)이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이민영 부회장(한국미술인선교회)이 성경봉독을 했으며 이찬식 목사(예장대신 부총회장, 사랑의교회 담임)가 '예수가 있다, 예수를 잇다'(고린도후서 3: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예수가 있다, 예수를 잇는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함께 보여준다.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도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세상과 이어주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기독교 미술인은 붓과 색채, 작품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태초의 예술가이시며,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우리

가 창조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고, 믿음이 담긴 예술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 예배가 된다. 기독교 예술의 목적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게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전시장에 걸린 그림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을 읽는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술인은 작품보다 먼저 삶으로 복음을 그려야 하며, 우리의 그림과 인생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예배는 이찬식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으며 바리톤 김주영이 축가를 불렀다.

이전 시상식은 이기선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태이 회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안 회장은 "제34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올해는 105명의 작가가 517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골든십자가상 3명, 특선 22



제34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이 26일부터 31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명, 입선 31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비록 수상하지 못한 작가들의 작품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배이자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이 앞으로도 새로운 기독교 미술인을 발굴하고 한국 기독교 미술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문화 선교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예술이 아름다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번 대회를 위해 수고한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작가들이 삶과 작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충성된 기독교 예술인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한다"고 했다.

이어 신혜정 운영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고난이 사라져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기독교 작가들은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열한 삶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작품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지난 34년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은 신앙과 예술이 만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

온 믿음의 현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가들의 작품은 34년을 이어온 믿음의 물줄기 속에서 빛나는 이정표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독교 예술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을 드러내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한 모든 관계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고 했다.

이어진 축사 순서에서 박형호 대표이사(진흥문화(주)), 정마리아 대표이사(GRACE 7)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박형호 대표이사는 "진흥문화가 올해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회장과 운영위원, 스태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진흥문화가 더 보탬이 될



이찬식 목사(예장대신 부총회장, 사랑의교회 담임)가 '예수가 있다, 예수를 잇다'(고린도후서 3: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니엘 최 기자



안태이 회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다니엘 최 기자

이어 정영모 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말했다. 그는 "제34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5명의 작가가 출품한 517점의 작품을 통해 기독교 미술의 신앙 고백과 예술적 열정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작품성, 독창성, 조형적 완성도, 기독교적 메시지 전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수상 여부를 떠나 모든 작품에는 작가들의 깊은 신앙과 기도, 창작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가 다양한 예술 언어로 표현된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이 미술대전이 새로운 기독교 미술인을 발굴하고 한국 기독교 미술의 발전과 복음 문화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편, 행사는 이어 초대작가 인증서 수여식, 입선, 특선, 골든십자가상 수상식이 진행됐으며 이기선 사무국장의 광고안내 및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다니엘 최 기자



초대작가 인증식 수여식이 진행됐다. ©다니엘 최 기자



신혜정 운영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다니엘 최 기자



박형호 대표이사가 축사를 전했다. ©다니엘 최 기자



정마리아 대표이사가 축사를 전했다. ©다니엘 최 기자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발의’ 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용 의원이 과거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던 터라 교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은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인 지난 2020년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담고 있었다.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용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손순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로 계류돼 있다. 교계에 선 이 법안에 대해 사실상 동성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전통 가족 제도의 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법률안을 들고 있는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진영 기자

ASHANIA

K-뷰티 혁신을 바탕으로 피부를 밝히고, 탄력을 더하며,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줍니다.

Powered by K-Beauty Innovation to Brighten, Firm, and Restore Your Natural Glow.

ASHANIA 홈페이지
<https://ashania.com>

한국지방자치학회,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과 고립화 저감’ 논의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항수 건국대학교 교수)가 8월 27-28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시대와 균형성장’이라는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통합돌봄과 독거노인 고립화 저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8일 열린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분과에서는 장현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과 최예스 더 신한대학교 교수(KBSI연구소장·인문도시사업단장)가 ‘통합돌봄시대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교협력과 로컬 거버넌스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돌봄 수요 증가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공공복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단체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외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자체·주

민·종교계가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국 BCC 공인채플린, APCGN, 일본 임상종교사 등 돌봄전문지도자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전 대외부총

장)와 이정은·이규태 신한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독거노인의 고립화 저감을 위한 퍼지컬 AI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점(Point)–선(Line)–면(Area)’ 연결모형을 제안했다. 이 모형에서 ‘점은 고립 위험이 있는 개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단계이며, ‘선은 이웃과 생활지원사, 의료·복지 전문인력,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연결하고 AI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응급의료 및 가족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단계다. ‘면’은 의료·복지·교통·생활서비스·지역공동체와 디지털 기술이 하나의 생활권에서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를 의미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생애주기 교육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배

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종교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에 활용하되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혜경 (사)월드뷰티헨즈 선임연구원은 종교계가 일회성 자선이나 위탁사업의 보조자가 아니라 지역 돌봄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별 고령화율과 독거율, 의료접근성, 대중교통, 종교시설 밀도 등을 반영한 ‘지역 돌봄 취약도 기반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종교계가 행정이 발견하기 어려운 주민을 찾아내고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는 ‘Care Bridge’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7일에는 ‘AI를 활용한 저출생 정책 방향 모색’ 분과가 마련됐다. 최영출 aSSIST 석좌교수는 ‘자치단체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의 AI Copilot 활용 방안’, 이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전 대외부총장)는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에서의 퍼지컬 AI 응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KBSI연구소),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단, AI행정공학연구소(aSSIST), 한국비교정부학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연구팀, 삼육대학교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연구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사)월드뷰티헨즈, 건국대학교 KU중국어연구원·지식콘텐츠연구원, 대한부동산학회 등이 참여했다. 김진영 기자

강릉 목회자들 “강릉에 복음과 사랑 전하자” 성시화 한마음

강릉시성시화운동 준비위 세미나 개최

강릉시성시화운동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강릉반석교회에서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를 초청해 ‘성시화운동의 아제와 오늘 그리고 강릉성시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준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릉지역 목회자들과 태백동해성시화운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철영牧사는 성시화운동의 역사와 정체성을 소개하며 “성시화운동은 교회(The Whole Church)가 전복음(The Whole Gospel)을 전시민(The Whole

City)에게 전하는 ‘3전운동’이라며 “전복음이란 복음과 사랑을 동시에 전하는 총체적 복음운동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손에는 사랑을 전하는 ‘쌍손전교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시화운동의 최우선 과제는 복음전도에 있다며 “개교회 전도도 중요하지만,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총체총력으

로 전도를 실천해보자는 것”이라며 교회간 연합과 협력을 당부했다. 김 목사는 성시화운동이 복음전도뿐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와 전도, 저출산 극복, 생명존중, 시민의식, 다음세대 사역 등 다양한 사회책임 사역을 제안했다. 특히 강릉성시화운동의 방향으로 강릉시와 지역 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강릉시기독교연합회와 견고하게 협력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시화운동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운동”이라며 목



강릉성시화운동을 위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준비위

회자는 교회를 연합하고 평신도는 직장·사회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김철영 목사는 “강릉지역 교회들이 강릉성시화를 위한 꿈을 갖고 기도하며 합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릉의 거룩한 변화를 꿈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 후 강릉의 성시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강릉시성시화운동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강릉성시화운동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교정상담학회, 창립 17주년 기념행사 개최

수원시 기념행사 열고 학술교육 활동 성과 돌아바... 영양과 정신건강 주제 강의로 진행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성결대학교)가 창립 17주년을 맞아 학회의 지난 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정상담학회는 지난 30일 수원 플로렌스 파티하우스에서 창립 1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회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동안 학회가 추진해 온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임원과 회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순효재 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요섭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와 유공자 표창, 학회 및 강사 소개 등의 순서로 행사가 이어졌다. 유공자 표창은 김상욱 교수(숭실대학교) 학술위원장이 맡았으며, 윤석주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창립 1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임원과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학회의 발전과 회원 간 화합을 다짐했다. ©교정상담학회

부회장(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은 교정상담학회의 주요 활동과 함께 이날 강의에 나선 강사를 소개했다. 기념행사에서는 교정상담과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도 마련됐다. 황지영 박사(극동대학교 중독복지상담학과)는 ‘영양제는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황 박사는 ‘장·뇌축부터 우울, 불안, 충동성까지 근거리 살펴보는 영양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영양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상담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 영양

에 대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 교정상담학회는 이번 창립 17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그동안 이어온 학술·교육 활동을 둔 목회자와 선교사, 기관 사역자 등 전문 목회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학회는 앞으로도 교정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 간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담과 교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장요한 기자

총회신학연구원, 2026년 가을학기 교육과정 대폭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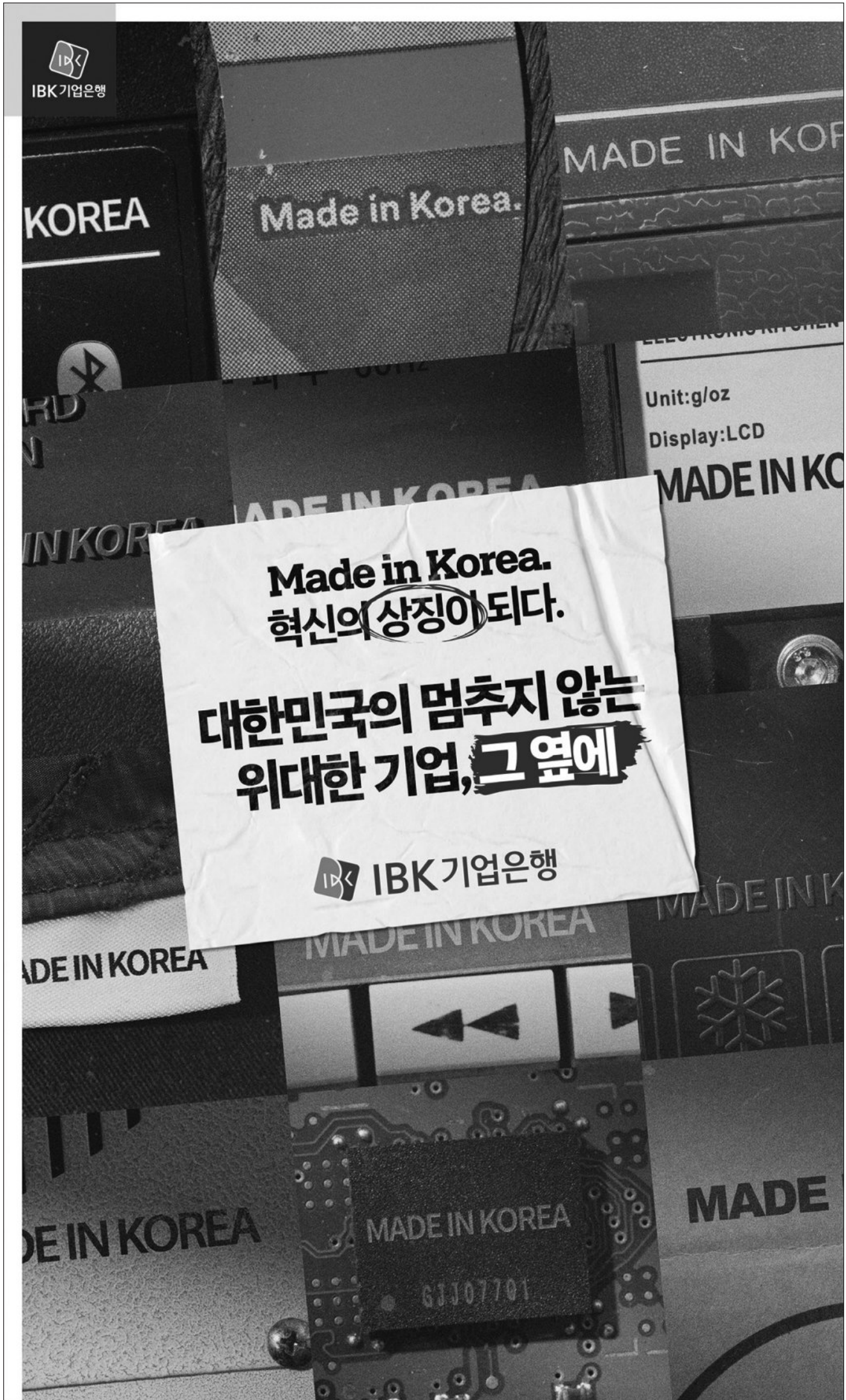
직장인 위한 ‘토요 전일과정’ 신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서기원 목사) 산하 목회자 양성교육기관인 총회신학연구원(원장 백만기 목사·사진)이 2026년 가을학기부터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고 교육 대상과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총회신학연구원은 기존 정규 교육과정에 더해 직장인 등 시간적 제약으로 신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토요 전일과정’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총회신학연구원은 이번 가을학기 교육

과정 개편을 계기로 신학 교육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총회신학연구원은 운영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교수진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교수연수생들을 위한 후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목회후보생들을 위한 학습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신학 교육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목회후보생들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재

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총회신학연구원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에 철저히 바탕을 둔 목회자와 선교사, 기관 사역자 등 전문 목회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립고등교육기관(BPPV)의 종교면제대학 인준을 통해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학 교육과 목회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입학 및 교육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회신학연구원 행정실(02-849-9395)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장요한 기자



2026 Youth KOSTA Irvine, 9월 18-20일 개최

Spiritual Intelligence in the Era of AI 주제로 어바인 온누리교회에서



Church)에서 열린다.

올해 Youth KOSTA의 주제는 “Spiritual Intelligence in the Era of AI”이다.

인공지능(AI)이 교육과 직업은 물론 일상 거의 모든 영역을 빠르게 변화시키

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어떻게 발견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KOSTA의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어 미주 한인 1.5세와 2세 청소년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말씀과 예배, 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회에는 교회와 예배 사역뿐 아니라 영화, IT, 의료, 범죄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이 참여한다.

주요 강사로 는 남가주 대형 교회인 Mariners Church의 Lead Worship Pastor DK Kim 목사가 참여해 다음 세대와 예배와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나눈다. 또한 LA의 Tapestry LA Church에서 시작된 Creative Worship Team Common Gathering이 찬양과 예배를 인도한다.

영화와 미디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항공 촬영 전문가인 XM2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Stephen Oh 감독이 참여한다. 그는 Spider-Man: No Way Home, Black Panther: Wakanda Forever, Star

Wars: The Rise of Skywalker, Mission: Impossible – Dead Reckoning, John Wick: Chapter 4 등 세계적인 영화 제작에 항공 촬영 전문가로 참여해 왔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신앙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Expedia Group에서 Head of Organic & Agentic Search로 일하고 있는 Daniel Kang, Meta의 Senior Director of Product Design Minnie Choi, Delta Airlines의 Regional Pilot Logan Kim, 변호사이자 목회자인 Daniel Lim, Hackensack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Jae Hyun Shim,

MD 등이 강사로 나서 자신들의 전문 분야와 신앙, 그리고 삶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9월 19일 토요일에는 이들의 이야기를 짧게 들을 수 있는 TED Talk 형식의 세션과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보다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그룹 워크숍이 마련된다.

3일간의 일정은 예배와 말씀, TED Talk, 전문인 세미나와 워크숍, 팀 빌딩, 소그룹 및 교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열리는 Evening Rally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집회로 진행된다. Youth

KOSTA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청년, 장년 등 지역 교회와 커뮤니티의 모든 이들이 별도의 등록비 없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2026 Youth KOSTA Irvine은 9월 18일 금요일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19일 토요일 하루 동안 집중적인 Youth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0일 주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오픈 집회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Youth 프로그램 참가비는 개인 등록 \$40, 교회나 단체에서 5명 이상 단체 등록 시 1인당 \$30이다. 매일 저녁 Evening Rally는 전 연령 무료 입장이다.

김민선 기자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제4기 중앙 인카운터 집회 및 가을학기 사역 활발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담임 임인철 목사)가 ‘제4기 중앙 인카운터(Encounter)’ 집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을학기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오는 9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중앙 인카운터’ 집회가 “죄와 상처로 짓눌렸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집회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장-박성균 목사와 Lisa Kim 집사가 강사로 나선다.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교회 측 제공

또한, 9월부터 최원석 부목사가 새롭게 부임하여 목회 사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2026년 가을학기를 맞아 ‘여제자반’, ‘예비강좌’, ‘영성훈련’, ‘어 성경이 읽어지네’ 등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 다양한 양육 강좌가 개강하여 진행

중이다.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역으로, 글로벌어린이재단이 주최하는 ‘결식아동돕기 자선 골프대회’가 오는 10월 12일(월) 오전 8시 Rhodes Ranch Golf Club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교회 측은 지역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의 주일예배는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지며, 수요일예배(수 저녁 7:00), 금요일기도회(금 저녁 7:00) 등 다양한 예배 모임이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웹사이트(www.lasvegascr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 2026 가을학기 성경공부 개강 및 침례식 거행

9월 8일부터 ‘셰퍼드 라이프’ 과정 시작...

하반기 신약 일독 캠페인도 병행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 ©교회 측 제공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담임 이정환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말씀을 위해 2026년도 가을학기 성경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는 9월 8일(화)부터 개강하는 이번 가을학기 성경공부는 ‘셰퍼드 라이프(Shepherd Life)’ 1~6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회 측은 성도들의 원활한 참여

를 돕기 위해 주중 온라인 화상 모임과 교회 현장 모임(오전/오후반)으로 시간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27일(주일) 오후 4시에 가을학기 침례식을 거행한다. 새 생명을 얻고 침례를 결단한 성도들을 위한 사전 침례 교육은 9월 20일(주일)에 실시된다.

이 밖에도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삶을 누리도록 ‘2026 하반기 60일 신약성경 일독’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요일 기도회와 주말 중보기도 모임(토 오전 8시, 주일 오전 10시 30분)을 통해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선 기자

라스베가스 하나교회, 한창수 목사 초청 ‘전교인 수련회’ 성료

8월 3~5일 리 캐년 캠프서

진행말씀과 교제로 영적 재충전 시간 가져

라스베가스 하나교회(담임 오동석 목사)가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리 캐년 캠프(Lee Canyon Camp)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하고,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는 엠마오교회 담임이자 규장 303 성경비전 암송학교 교장인 한창수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깊이 있는 말씀을 전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

은 일상에서 벗어나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재충전을 경험했다.

특히 예배와 말씀 집회 외에도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세대를 넘어 온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됨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하나교회 측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온 성도가 지역 사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헨더슨 주사랑장로교회, 지역 사회 섬김과 성도 양육 박차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네바다주 헨더슨에 위치한 주사랑장로교회가 최근 흥경현 신임 담임목사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알리며, 가을을 맞아 지역 사회 섬김과 성도 양육을 위한 다채로운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한인 2세 자녀와 지역 이웃들에게 자랑스러운 고국의 문화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사랑 한국학교’ 가을학기가 8월 29일(토) 개강했다. 이번 학기는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됐다.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 돌보는 ‘금융 사역’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주사랑장로교회는 8월 28일

(금)을 비롯해 정기적인 금요일 사역으로 홀리드들을 위한 샌드위치 나눔 봉사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성도들의 영적 재무장과 헌신을 다짐하는 훈련 및 기도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 함께 부름받는 ‘수요 3일 특별기도회’가 진행 중이며, 8월 30일 오후에는 임직 필수 양육과정인 ‘제3차 주사랑 QT세미나’가 개최됐다.

또한, 9월 9일부터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적재적소에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Finding Your SPOT 주사랑 은사발견



헨더슨 주사랑교회 ©교회 측 제공

세미나’가 수요 오전반과 목요일 저녁반으로 나누어 4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사랑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는 표어 아래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헨더슨 주사랑장로교회는 다가오는 10월 18일, 뜻깊은 창립 24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김민선 기자

Adellina

더 나은 수면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Simple Way to **Better Sleep**

Adellina 홈페이지

Adellina 브랜드스토어

2026 미주 피스메이커(Peacemaker) 목회자 세미나

“성경적 갈등 해결 원리로 분쟁없는 건강한 이민교회를 세운다!”



미주 한인 이민교회 안에 세대 간 갈등과 목회자 소진(번아웃 Burn-out)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분쟁을 조정하고 화평의 문화를 세워갈 목회 리더십 세미나가 마련된다.

‘2026 미주 피스메이커(Peacemaker) 목회자 세미나’가 9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길교회(고광선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성경적 갈등 해결 원리로

분쟁 없는 건강한 이민교회를 세운다’이며, 교회 분쟁 조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성경적 화해의 원리와 적용을 다룬다.

세미나가 마련된 배경에는 교회 안팎에 걸쳐 깊어지는 갈등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크리스천 투데이(christiantoday.com)에는, 미국 목회자의 80% 이상이 지난 5년 동안 목회 사역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교회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이 조

사 결과에 따르면, ‘리더십, 직원 관계 및 조직 문화와 관련된 어려움이 이러한 고려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연구를 실시한 리더십 코치 재러드 파박은, 이 연구와 관련해, “ “목회자들이 사역을 떠나는 것은 신앙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조직 관리와 갈등 조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들은 어려운 직원을 이끌고, 힘든 회의를 진행하며,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학교는 설교를 가르치지만, 조직을 이끄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

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연구 결과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결과, 교회 안에서 세대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항목으로는 ‘의사소통 방식’(67%), ‘교회 봉사 자세’(62%), ‘정치사회적 이슈’(60%), ‘예배 스타일’(57%) 등이 꼽혔다.

미주 한인 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인 교회 목회자 10명 중 4명이 깊은 ‘영적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남바즈 343호).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갈등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해결하고 화평의 문화를 세워갈 지도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기획됐다. 세미

나는 남가주교회협의회와 (사)한국피스메이커가 주관하며, 한길교회가 후원한다.

강사로는 이철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이사장, 기독교 화해 중재위원)와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가 나선다. 두 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화해의 원리와 분쟁 조정 해결의 적용 및 실제 사례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일반 성도들을 위한 ‘피스메이커 공개 세미나’도 별도로 마련된다. 공개 세미나는 이보다 앞선 9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열리며, 여삼열 목사가 강의를 맡는다.

문의 Tel.323.735.0200 | 678-499-8160 김민선 기자

벨뷰한인장로교회, 최윤식 박사 초청 ‘미래 교육 세미나’ 개최

9월 25(금)-27일(주일) 교회·교회학교의 미래와 다음 세대 교육 방향 모색

벨뷰한인장로교회(담임 이동철 목사)는 오는 9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사흘간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를 초청해 ‘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한 미래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시, 부흥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 변화로 대변되는 ‘빅 체인지(Big Change)’ 시대를 맞아 교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



운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날짜별로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조망하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25일(금) 오후 7시에는 ‘교회 교육이 살아야 한다’, 26일(토) 오후 7시에는 ‘미래 인재의 조건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27일(주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로 나서는 최윤식 박사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휴스턴대학교 미래학부에서 석사학위, 피닉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

았다. 그는 세계미래학회 사무총장과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래 변화와 한국 사회의 방향을 연구하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30 대담한 미래」와 「AI 초강국의 조건」을 비롯해 80여 권의 저서를 펴내며 인공지능, 경제, 교육, 사회 변화 등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 왔다.

벨뷰한인장로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교회교육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www.bkp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206-234-3994 김민선 기자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아름다운 시니어 모임’ 9월 2일 개강

55세 이상 남녀 대상 10주 과정... 건강·스마트폰·AI·찬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시애틀연합장로교회(담임 심우진 목사)가 지역 시니어들의 건강한 여가와 배움, 교제를 위한 ‘아름다운 시니어 모임’ 2026년 2학기를 오는 9월 2일(수) 오전 10시 개강한다.

55세 이상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모임은 총 10주 과정으로, 교회 유스 예배실에서 진행된다.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부터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음악과 찬양에 이르기까지 시니어들의 일상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라인댄스와 건강체조, 스마트폰 및 아이폰 활용법,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제



미나이’ 교육, 노래와 찬양, 우쿨렐레 등이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시니어들이 보다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신체활동과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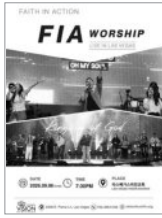
시애틀연합장로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시니어 모임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생활 기술을 배우고, 함께 운동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지역사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번 학기 회비는 100달러이며, 모임마다 정성껏 준비한 점심이 제공된다. 등록 및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호동 목사(206-554-9430)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피아워십, 9월 6일 라스베가스서 찬양집회... 2026 미국 서부 선교투어 이어가

라스베가스비전교회서 오후 7시 30분 ‘FIA WORSHIP LIVE IN LAS VEGAS’ 남가주·라스베가스·샌디에이고 등 순회하며 예배 인도



한국의 예배사역팀 피아워십(FIA Worship)이 오는 9월 6일(주일) 오후 7시 30분 라스베가스비전교회(Las Vegas Vision Church)에서 찬양집회를 갖는다.

‘FIA WORSHIP LIVE IN LAS VEGAS’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피아워십의 2026 미국 서부 선교투어 일정 가운데 하나로, 라스베가스 지역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주일 저녁에 열리는 이번 집회는 특정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라스베가스

지역의 한인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합적인 예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aith In Action’을 의미하는 피아워십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으며, 국내의 집회와 온라인 예배 콘텐츠 등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만나고 있다.

피아워십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라스베가스뿐 아니라 남가주와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도 잇따라 예배를 인도한다.

미국 서부 선교투어는 9월 2일 GBC 미주복음 방송 라디오 생중계를 시작으로 같은 날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집회를 갖는다. 이어 열바인 온누



리교회와 씨드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한 뒤 9월 6일 저녁 라스베가스비전교회를 찾는다.

라스베가스 집회 이후에는 에브리데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를 거쳐 9월 13일 샌디에이고 갈보리장로교회 집회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702-469-5162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타코마 삼일한글학교, 2026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9월 5일 개강... 한글 단계별 교육과 그룹 악기 수업 운영

타코마 삼일한글학교(담임 권상길 목사)가 2026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가을학기는 오는 9월 5일(토) 개강해 12월 19일(토)까지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9월 1일 기준 1학년 이상 학생 60명이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학생들의 한글 수준에 맞춘 단계별 교육이 이뤄지며, 점심시간을 가진 뒤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그룹 악기 수업이 이어진다.

음악 수업에서는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롬본, 트럼펫, 호른,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다. 그룹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악기를 준비해야 한다.

삼일한글학교는 한글 교육과 음악 수업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체계적으로 쌓는 동시에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며 음악적 경험도 넓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등록비는 학생 1인당 300달러이며, 같은 가정의 둘째 자녀부터는 280달러가 적용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60명으로 제한된다.

학교는 타코마 삼일교회가 위치한 7461 S. Verde St., Tacoma, WA에 있다. 등록 및 수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253-302-7530 또는 웹사이트(tacomatrinit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中 당국에 구금된 교회 지도자 아내 “박해 속에서 교회 더 하나 돼”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미등록 가정교회 단속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장기간 구금된 가운데, 한 목회자 아내가 박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으며 중국교회와 하나로 연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시온교회 가오잉자 목사의 아내 경평평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남편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구금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했다고 밝혔다. 경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당국이 미등록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이후 6세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이동해 생활하고 있다. 그는 남편을 박해하고 있는 중국 당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시온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 약 30명이 구금됐다. 이는 중국 도시 지역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한 40여 년 만의 가장 큰 규모의 조직적 단속으로 평가됐다. 중국 전역에 수천 명의 성도를 둔 시온교회는 창립 목사 진밍르의 구금이 마중 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진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요청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의의 조치로 지난 7월 4일 미국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오 목사를 포함한 8명의 교회 지도자는 여전히 수감 중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축복일 것”
경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베이징 외곽의 한 자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숨어 지내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은 진 목사의 자택 등이 당국에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피신한 상태였다.

경씨의 남편 가오 목사는 단속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처음에는 자택에 남으려 했지만, 어린 아들을 걱정하던 아내의 요청에 따라 집을 떠났다. 가족은 비가 내리던 밤 서둘러 집을 쫓겨났으며, 경씨는 아들의 성경도 가방에 넣었다. 가족이 떠난 뒤 경찰은 자택에 들이닥쳤고, 집에 남겨진 고양이는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던 흔적을 남긴 채 옷장 안에 숨어 있었다.

경씨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의 위치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체포되기 몇 시간 전까지도 그는 다른 성도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확인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남편은 비교적 평온한 모습으로 잠들었다고 회상했다.

경찰은 새벽 2시에 자인의 집을 찾아왔고, 가오 목사를 확인한 뒤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경씨는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지만, 교인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끌려가기 직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축복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서로 포옹하거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던 점은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박사과정 중 복음 받아들이며
경씨는 기독교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며 기도와 성경 구절을 배웠지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된 것



경평평 사모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남편 가오잉자 목사. 가오잉자는 시온교회 담임목사로, 지난해 가을 중국 공산당의 지하교회 탄압 이후 중국 남부에서 구금되어 있다. © 사진 제공: 경평평 여사

은 박사과정에서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삶에 의문을 품으면서부터였다고 밝혔다.

그는 베이징의 국영 개신교회인 하이텐 기독교회에 처음 출석했지만 설교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예배 중 잠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세속적인 삶과 비기독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점차 소외감을 느끼던 중 2008년 친구의 권유로 시온교회를 찾았다.

당시 진밍르 목사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들은 뒤 강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경씨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주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며 “울고 목이 떨리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씨는 시온교회 수련회에서 목회 인턴으로 섬기던 가오 목사를 만나 결혼했다. 그는 선교사로 해외에서 사역하는 것을 꿈꿨지만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일

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에 참여하게 됐고, 결국 지역 목회자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사역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난 통해 믿음 더 강해져”
경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과거와 달리 실제로 가족이 박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현실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드슨 테일러와 마더 테레사 등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으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실제적인 시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을 통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으며 믿음도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밝혔다.

경씨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남편과 연락하고 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남편이 직접 쓴 12통의 편지가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오 목사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있으며, 석방된 이들을 통해 남편이 수감자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는 감옥에서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그들이 실제로 감옥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교도관들이 가오 목사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엄격하게 감시하며 다른 수감자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막았지만, 이후 이들의 신앙과 평온한 모습이 다른 수감자들에게 증거가 됐다고 경씨는 전했다.

그는 남편이 감옥에서 설교문과 시를 써서 편지로 보내고 있다며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신다”고 말했다.

◆어린 아들도 “아빠는 감옥에서 전도하고 있어”
아버지가 체포될 당시 5세였던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경찰이 어머니를 데려가는 꿈 등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경씨는 처음에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장기간 출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도한 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투옥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들은 아버지가 감옥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고 한다.

아들은 이후 “아빠가 지금 감옥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태국의 유치원에 다니는 그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친구의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을 전해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권했다고 경씨는 전했다.

◆“박해 속에서 중국교회 더 연합”
경씨는 중국교회와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해외 성도들에게 박해 속에서 형성된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된 직후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참여하고 온라인에서 연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들을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당국자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중국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씨는 시온교회에서 진밍르 목사가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있는지를 묻곤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중국교회의 박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씨는 “중국교회의 DNA에서 고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떠난 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처럼 주님과 가까웠던 적도, 믿음이 강하고 성숙했던 적도 없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美 산림청 직원, ‘일요일 근무 면제’ 종교적 배려 인정받아

일요일 예배 참석을 위해 근무 면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던 미국 산림청 직원이 법률 지원을 받은 끝에 종교적 배려를 인정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글렌우드스프링스에서 근무하는 산림청 법집행관 애덤 디머트(Adam Diemer)는 최근 일요일 근무를 면제받는 종교적 배려 조치를 승인받았다. 독실한 장로교 신자인 디머트는 매주 일요일 두 차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머트를 대리한 법률팀에 따르면 그는 일요일 근무를 면제해 달라는 종교적 배

려 요청을 두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디머트는 일요일에도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디머트는 법률회사 데이비스 그레이엄 앤 스티븐스(Davis Graham & Stubbs LLP)와 수정헌법 제1조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보수 성향의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FLI)의 지원을 받았다.

FLI의 클리프 마틴(Cliff Martin) 선임 변호사는 “미 농무부의 결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미 종교적 신념을 실

천하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근무환경 조정을 제공해야 하며, 조직에 중대한 지장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디머트는 2024년 해당 직책에 임명됐다. 그의 취임 전 이 직책은 수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디머트는 채용된 이후 2024년 3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일요일에 개인 휴가를 사용했으며, 필요에 따라 두 차례 일요일 근무에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들은 긴급 상황에서는 일요일에도 근무하겠다는 그의 입장이 정부가 종교

적 배려 요청을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한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직장 내 배려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그로프 대 드조이(Groff v. DeJoy)’ 사건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우편 노동자에 대해 하급심이 고용주에게 일요일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당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판결문에

서 고용주가 종교적 관행을 수용하는 데 따르는 ‘과도한 부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과도한 부담’ 여부는 고용주의 사업 환경을 고려해 상식적인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정 종교나 종교 일반에 대한 직원들의 반감 또는 종교적 관행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부담은 ‘과도한 부담’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적 배려와 종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지침은 종교적 기도와 안식일 준수, 종

교적 절기와 관련해 직원들이 근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모든 자유를 지키는 보호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공화국의 근본 원칙으로 인정해 왔다”며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함께 신앙의 자유로운 실천을 보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파키스탄 병원 화재 뚫고 아기 구한 간호사 ‘영웅’ 등극

라지아 노린 간호사 목숨 건 구조에 국가 훈장 및 포상금 수여…
관리 소홀 책임자 8명은 직무 정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한 국립 병원 신생아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신생아 14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 속에서 화마가 병동을 집어삼키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명의 아기를 적극적으로 구조해 낸 기독교인 간호사가 파키스탄 전역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8월 30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세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펼친 라지아 노린 간호사에게 파키스탄 국가 최고 민간 훈장 중 하나인 ‘시타라이히드마트’를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그녀의 송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가리기 위해 1000만 파

키스탄 루피(미화 약 3만 5850달러)의 특별 포상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파키스탄 병원 화재 참사는 지난 8월 26일 오전 7시경 이슬라마바드에 위치한 파키스탄 의학연구소(PIMS) 병원 모자보건 병동에서 발생했다. 무스타파 카말 연방 보건부 장관의 현장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병동 내 에어컨 장치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불길은 고농도의 산소가 공급되고 있던 신생아실 내부로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에어컨 폭발로 신생아실 순식간에 불바다… 목숨 건 극적 구조**

CDI는 당시 신생아실에 총 15명의 아기가 임원해 있었다고 밝혔다. 불길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노린 간호사는 신속하게 화재 현

장으로 뛰어들어 한 명의 생명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거센 불길과 유독 가스로 인해 안타깝게도 나머지 14명의 아기들은 모두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사리프 총리는 화재가 병동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의 생명을 구한 노린 간호사의 모범적인 책임감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총리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까이 자신을 희생한 그녀의 모습에 파키스탄 온 국민이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의료진은 국가 차원의 최고의 예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게 된 노린 간호사는 정부의 포상 발표 직후 현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인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간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고 답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생명을 구하는 것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파키스탄의학연구소(PIMS)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인 간호사 라지아 노린(Razia Noreen)의 모습. 그는 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당시 영아 한 명을 구한 용기와 헌신적인 행동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Social Media

이 간호의 최우선 가치이자 본질인 만큼, 누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직업적 의무에 충실했다는 설명이다.

◆**간호사의 당연한 본분 다했을 뿐**…

끝내 구하지 못한 생명에 비통함

CDI는 노린 간호사가 끝내 화마에서 구하지 못한 14명의 아기들을 언급할 때 짙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날의 참혹했던 비극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화재 당시 아이들에게 약을 투여하고 있던 순간에 에어컨에서 갑자기 거대한 불길에 치솟았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대피시키고 싶었으나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져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전했다.

파키스탄 사회 내 소수 종교인인 기독교인 간호사의 헌신에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과 무슬림 모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목소리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 편자주 의회의 기독교인 의원인 예자즈 알람 어거스틴은 노린 간호사의 이타적인 봉사가 파키스탄은 물론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에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고 평가했

다. 현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파키스탄 네티즌들이 화재 당시 급박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공유하며, 자신의 안전보다 환자의 생명을 앞세운 그녀를 진정한 의료인의 표상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종교 벽 허문 전 국민적 찬사 속 병원 책임자 엄벌 착수**

한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병원 당국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문책과 수사가 시작됐다. 사리프 총리는 즉각 무함마드 이크발 PIMS 병원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병원 핵심 관계자 8명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수사 당국에 이번 파키스탄 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된 안전 관리 태만이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형사 처벌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범죄적 수준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니엘 최 기자

멕시코시티 아레나서 기독교 여성 집회 ‘성경과 우리’ 개최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아레나에서 기독교 여성들의 신앙 성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규모 집회 ‘성경과 우리가 열렸다’고 8월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멕시코와 미국 등 북중미 25개 도시를 순회한 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치러졌다.

행사 주최자인 미셸 루이스를 비롯해 소니아 루나, 아나 가브리엘라 피달고, 글로리아나 몬테로, 에스테르 아구아론 등 현지 유력 여성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거 단상에 올랐다. 찬양 인도자 카렌 에스피노사와 리오 워십 팀이 음악을 담당해 행사 전반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행사를 주최한 미셸 루이스는 과거 개인적 고통 속에서 성경을 통해 위로와 방향을 찾은 경험을 대중과 공유했다. 그는 작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여성들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 것을 넘어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도록 돕는 대규모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텍사스주 레이크우드 교회의 글로리아나 몬테로 목사는 일상에서 굳건한 신앙과 신념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고파탈라 카사 데 디오스 교회의 공동 설립자인 소니아 루나

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테르 아구아론은 참석자 개개인을 호명하며 애연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CDI는 이번 기독교 여성 집회가 전통적인 대형 콘퍼런스 형식을 벗어나 여러 창의적인 요소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성경과 우리’ 책자에 포함된 삽화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최 측은 대규모 집회가 끝난 후에도 참석자들의 영적 성장이 일상에서 이어지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글로벌 성경 애플리케이션인 유버전을 통해 40일 간의 묵상 훈련을 제공하며 일상 속 신앙 실천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칸시온 필름과 협력해 기독교 영화 ‘그가 나를 팔이라 부르신다’를 홍보하며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이러한 기획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기독교 교회와 각 가정 지역 사회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제자 훈련 과정이 되기를 목표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행사는 최근 북중미의 기독교 교회 내에서 여성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돕는



‘성경과 우리(The Bible and Us)’ 행사에 참석한 수천 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Photo by Ommar Ayala

이니셔티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성경적 가르침과 공동체 의식 기독교 여성 리더십 영적 멘토링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경과 우리’ 운동의 핵심 과제는 기독교 여성들의 삶 중심에 성경을 다시 확고히 세우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실천적이고 일관된 신앙생활을 장려하는 것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수천 명의 기독교 여성들이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셸 루이스 개인의 경험에서 태동한 소규모 모임이 대규모 기독교 여성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안착하며 투어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니엘 최 기자

영국 최대 기독교 음악 축제서 대형 간판 추락 1명 사망 6명 부상

웨스트서식스 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착수,
주최 측 행사 전면 취소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영국 최대 규모 기독교 음악 축제 현장에 서 대형 간판이 군중을 덮쳐 1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8월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축제 첫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최 측은 남은 행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서식스 지방 경찰청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8일 영국 웨스트서식스주 위스턴 에스테이트에서 열린 빅 처치 페스티벌 현장에서 간판 추락 사고가 발생해 40대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이스트서식스주 이스트본 출신의 41세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유가족에게 전문 경관이 배치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축제를 즐기 위해 수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처드 맥도나 서식스 경찰 수사과장은 현장에서 최소

6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만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축제 참가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보건의전청 등 다수의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살살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나 관련 정보를 보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사우스 이스트 코스트 구급대 역시 사고 당일 오후 3시 30분 직후 비상 연락을 접수하고 구급차와 중환자 전문 구급대원 및 특수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응급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행사 전면 취소 및 귀가 조치**

빅 처치 페스티벌은 기독교 록 밴드 딜리리아스의 전 키보디스트인 팀 켄이 2009년 창립한 행사다. 하루 일정의 단기 행사로 출발해 매년 수만 명이 찾는 영국 최대 규모의 연례 기독교 음악 축제로 성장했으나 올해는 불의의 사고로 막을 내리게 됐다.

주최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일시적으로 행사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으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영국 웨스트서식스주 스타이닝 인근 위스턴 에스테이트(Wiston Estate)에서 열린 이전 연도의 ‘빅 처치 페스티벌(Big Church Festival)’에서 관람객들이 메인 무대 앞에 모여 있다. ©Big Church Festival

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자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대형 간판이 추락해 1명이 목숨을 잃고 최소 7명이 다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최 측은 현재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축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과 안녕이라며 현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최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정부, 네팔 홍수 연락두절 한국인 9명 수색 총력… 헬기·육로·드론 병행

신속대응팀, 람체까지 육상 접근 시도… 네팔 군·경찰과 공조 강화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정부가 헬기와 육로, 드론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수색구조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31일 헬기를 동원해 위어택과 둔체 지역 일대를 수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헬기 운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두산 에너지리미티 측 관계자가 수색에 동승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신속대응팀은 지난 29일 헬기 1대를 이용해 두 차례 수색에 나섰지만, 30일에

는 네팔 당국이 안전 문제와 항공 혼잡 등을 이유로 헬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아 무산됐다.

헬기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수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팔 당국의 운항 승인과 현지 기상, 협준한 지형 등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육로수색팀 람체까지 접근… 현지 숙영도 계획

정부는 헬기 운항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사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육상 접근로 확보에도 나섰다.

소방청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육로수색팀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약 1-2km 떨어진 람체 지역까지 이동을 시도하고 현지에서 숙영할 계획이다.

육로수색팀은 전날 수색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 답사 차원에서 바타르 지역까지 이동했다. 이날은 카트만두로 돌아오지 않고 람체에 머물면서 사고 현장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상황이 허락할 경우 드론을 활용한 정밀 수색도 병행할 예정이다. 드론 운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제한돼 있고 네팔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

요하지만, 신속대응팀은 람체 도착 후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드론 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군·경찰과 공조… 생존자 통해 동선 파악

정부는 네팔 군뿐 아니라 현지 경찰과도 협력해 한국인 연락두절자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네팔인 생존자들을 면담해 한국인들이 사고 당시 어느 방향으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추정 동선도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속대응팀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및 구

조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헬기를 통한 광역 수색, 드론을 통한 정밀 수색, 수색 기반 확대를 위한 육상 루트 탐색, 경찰을 통한 수색 활동 독려 및 확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의 구조 지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따라 제한된 헬리콥터 등 자체 자산을 활용해 광범위한 피해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팔 군과 경찰은 한국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도 자산을 투입해 한국인 연락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

◆박재경 신임 주네팔대사 부임… 수색 지원 최우선

그동안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온 주네팔대사관에는 박재경 신임 대사가 이날 오전 부임했다.

박 대사는 한국인 연락두절자 수색과 구조 지원을 최우선 업무로 두고 네팔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현지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헬기와 드론, 육로수색을 병행하면서 네팔 군·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연락두절된 한국인 9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용국 기자

합수본, 신천지·통일교 관계자 32명 기소… 이만희 구속·한학자 불구속

정당 입당 강요·조세포탈·불법 정치자금·형령 등 수사… 8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 분리 원칙 위반 및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31일 약 8개월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관련해 정당 가입 강요, 조세포탈, 교회 자금 횡령 등을 수사해 16명을 기소했고,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형령 등의 혐의로도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 16명 기소…이만희 등 4명 구속

합수본은 특정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간부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이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천지의 위계질서와 조직적 조직분화를 이용해 각 지파에 정당 가입 목표 인원을 할당한 것으로 봤다.

수사 과정에서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만 명의 신도가 특정 시기에 특정 정당에 대거 가입했고, 일부 신도는 본인의 자유의사와 달리 가입을

강요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수본은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천지 총회 본부와 주요 간부 주거지, 특정 정당 당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약 200명을 조사했다.

◆신천지 차원의 조세포탈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지교회 매점을 신도 개인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현금 매출을 숨기는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약 75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이 총회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3명은 교회 자금 약 6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이와 별도로 시문지와 신학부장과 교양시장 예비경선 출마를 앞섰던 민주당 소속 후보의 지지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신도 30여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합수본은 총회장이나 총회 차원에서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조직적 입당 강요 사건과는 별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16명 기소…정치인 132명에

불법 후원 혐의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정치권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교단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수사됐다.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회장,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이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형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일교 조직을 활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약 1억8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과 송 전 회장이 공모해 통일교 자금 2370만원을 국회의원 등 47명에게 제공하고,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회장이 공모해 1억2000만원을 국회의원 등 92명에게 기부한 혐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정치자금 사건에서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직접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및 기록 반환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학자 총재, 교단 자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별도의 교회 자금 횡령 사건에서는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본부장, 전 통일교 중앙행정실장 등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대상 형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합수본은 이들이 통일교 자금 약 60억원을 허위 회계처리해 인출한 뒤 ‘예물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려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수본은 설명했다.

통일교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불송치 또는 불기소 판단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한 총재가 전제수 부산시장에게 한일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목적으로 명품시계와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다.

합수본은 전 시장이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시점을 특정했지만 실제 금품 수수 여부와 액수를 입증하지 못했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따라 한 총재 등의 뇌물공여 혐의도 불기소됐다.

다만 전 시장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한 사실은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 해외투자·금융시장 활성화 보완 입법도 추진”

김승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법무부의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헌법상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본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헌법에서 정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원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판사와 변호사 경력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 활동도 많이 했다”며 “우리 사회의 낮고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잘 살피고 보듬을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스

김 후보자는 향후 법무행정 과정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정착과 함께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한 법무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 해외 투자라든가 금융시장 활성화 등 법무부에서 보완할 여러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뿐 아니라 경제사회 변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박용국 기자



걱정은 나누고
위기는 함께하는 자조금~!

자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사)한국자조회

(사)한국인삼협회

(사)한국환경농업협회

(사)한국복숭아 생산자협의회

(사)한국곶감협회

(사)한국양파연합회

(사)한국마늘연합회

(사)한국포도협회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

(사)한국참외 생산자협의회

(사)한국난 재배자협회

(사)대한두채협회

(사)한국배향 연합회

(사)한국키위연합회

(사)한국배언합회

(사)한국파프리카 생산자자조회

(사)한국사과연합회

(사)제주감귤연합회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현황

2015년 인삼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 가격안정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

자조금, 이런 일을 합니다

자율적 수급조절

경작 및 출하신고, 품질과 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지원

소비 홍보

품목에 대한 소비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캠페인, 판촉행사, 언론홍보 등

품질 개선 등 조사 연구

품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창구 단일화 등 유통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교육 및 정보 제공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품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국고 매칭 지원

美, 한 달여 만에 이란 공습… 라라크섬 IRGC 발사대 타격에 이란 보복

이란 “요르단 미군기지 2곳 미사일·드론 공격”… 호르무즈해협 긴장 다시 고조

미군이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라라크섬에 있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했다. 미국이 이란 내 목표물을 직접 타격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란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IRGC는 이날 미군의 라라크섬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요르단에 있는 미 공군기지 두

곳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측 보복 공격에 따른 미군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요르단 당국은 자국 영공에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8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美 “호르무즈해협 기뢰 설치 차단 목적” AP통신 등은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

용해 미군이 이날 라라크섬의 IRGC 로켓 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당국자는 IRGC가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려는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격이 호르무즈해협에 해상 기뢰가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는 “미군은 이 지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에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의 흐름을 보호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 역시 라라크섬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미군 타격은 지난주 호르무즈해협 국제 항로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완료된 이후 이뤄졌다. ◆이란 “응징 이어질 것”…타스님 “2명 사망” IRGC는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IRGC는 “우리 대원과 동료 여러 명이 순교하거나 다쳤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이번 공격이 “침략자에 대한 응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은 경제와 군사 양쪽 영역에서 이번 오판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번 미군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경제적 디데이 이어 군사행동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직접적인 군사행동보다는 대이란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의 재정적 힘이 미국을 “매우 큰 승리를 향해”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도 이란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이를 ‘경제적 디데이’(Economic D-Day)라고 규정했다. 미국이 경제 제재와 함께 다시 이란 내 군사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고, 이란도 요르단 주둔 미군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주장하면서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홍은혜 기자

시진핑·푸틴, 비슈케크서 정상회담… ‘시베리아의 힘 2’ 진전 주목

5월 베이징 회담 이어 올해 두 번째… 가스 가격 대러 의존도 놓고 협상 지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1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두 정상은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2026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

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국 현안과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핵심 에너지 협력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리 우사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지난 28일 인테르팍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시베리아의 힘 2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최종 합의 가까워져”…중국 은 신중

우사코프 보좌관은 관련 논의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당채샹 국무원 부총리가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베리아의 힘 2 협상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됐다.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당시 양국 협상이 ‘최종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베리아의 힘 2는 2006년 처음 제안된

약 2600km 길이의 가스관 사업이다. 러시아 야발 북극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공급하는 구상으로, 완공될 경우 연간 최대 500억㎥의 천연가스를 운송할 수 있다. 양국 협상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급 가격과 장기적인 에너지 의존도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팽로 절실, 중국은 협상 서두를 이유 적어

중국은 러시아 측에 가스 공급 가격을 러시아 국내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시장으로 향하던 천연가스 판로가 크게 축소되면서 중국 시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도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어 서둘러 장기 계약에 나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스관이 본격 가동될 경우 중국의 러

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협상을 늦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왔지만, 시베리아의 힘 2 협상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비슈케크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가스 가격과 공급 조건 등 핵심 쟁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은혜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8.9%… 리얼미터 조사 첫 30%대·7주 연속 하락

국정수행 긍정평가 전주 대비 1.3%p↓ 부정평가 58.7%… 중도층·50대 등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0%대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조사보다 1.3%포인트 하락

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58.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5%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8.5%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4.1%포인트, 대구·경북에서는 1.0%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성별로는 여성에서 1.4%포인트, 남성에서 1.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7.5%포인트 떨어졌으며, 40대는 3.1%포인트, 60대는 1.9%포인트, 70대 이상은 1.6%포인트 각각 하

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3.2%포인트 낮아졌고, 진보층에서도 2.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찬·경기에서는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5%포인트 올랐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7%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8.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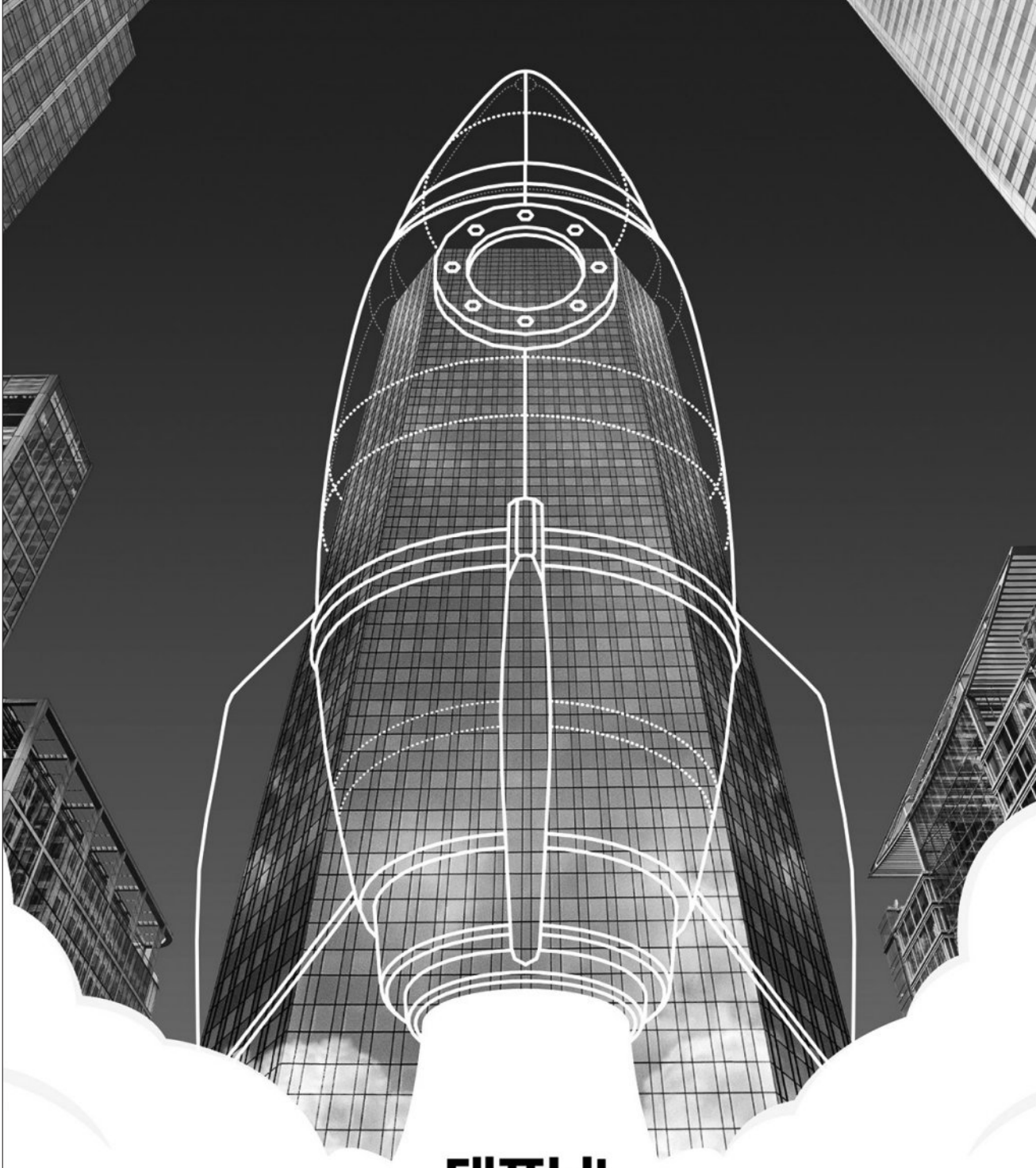
대입제도 개편안에 학부모 31% “학교교육부터 단계적 도입해야”

윤선생 학부모 905명 설문…수능 사·논술형 도입 긍정 54.5%, 전 과목 절대평가 찬성 60.7%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관련해 초·중·고 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전면 시행에 앞서 학교교육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리교육 기업 윤선생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초·중·고 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905명을 대상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 이슈로 ‘수능 사·논술형 평가 도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비율은 45.2%였다. 수능에 사·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4.5%,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1.4%로 나타났다. 수능 사·논술형 평가 도입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시행 30년을 넘은 수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는 응

답이 5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어서’가 52.1%, ‘학생들의 문해력·표현력을 키울 수 있어서’가 43.4%로 나타났다. ‘수능 개편에 맞춰 학교 수업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26.4%였다. 반대로 사·논술형 평가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또 다른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63.7%로 가장 높았다. 대입개편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60.7%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의견은 36.2%였다. 학부모들은 새로운 대입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을 보였다. 개편안 시행 전까지 교육당국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전면 시행에 앞서 학교교육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세워서 한다’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다. ‘변별력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25.7%로 뒤를 이었고, ‘사·논술형 문항 출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은 14.4%였다. 대입제도 개편안 시행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자녀가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다. ‘대입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지’를 걱정한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고, ‘입시제도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가 걱정된다는 응답도 25.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능 사·논술형 평가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긍정적 인 반응이 절반을 넘었지만, 실제 제도 시행에 앞서 학교교육과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타났다. 이나래 기자



대표님!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회사의 성장동력에 날개를 다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혁신으로부터, 기업 최적화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편리한 오피스 기능 | 강력한 검색 기능 | 믿을 수 있는 보안 | 실시간 자막, 회의록 작성 등 편리한 회의 지원 | SEAMLESS하고 쉬운 사용성

SAMSUNG SDS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했가에 있습니다. 다니엘 최 기자

기도하는 마을 Praying Towns

이연승 교수
센트럴 신학교



센트럴 신학 단상

기도는 한국 민족의 장가(特技)이다.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기독교가 도입되기 전에도, 서당당에 정화수 떠 놓고 새벽을 밝히는 기도, 야구 보 같이 당대에 이름을 떨친 출중한 문장가나 선비들이 남긴 기도문 등, 시대를 초월하고 양천良賤을 넘나들며 도처에서 발견되는 기도의 흔적은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면면히 흐르는 기도의 고동소리를 들려준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 James S. Gale 은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쓴 글귀에서 한국인이 드리는 기도의 맥박을 짚어낸다. 고려에 스스로를 “두려움의 자녀”요 불초不肖한 자로 겸비하는 한 왕의 기도이다. 선조들의 찬란한 유산을 자신의 우매함으로 파손하지 않도록, 숙종의 낭자한 유희로 암흑에 감추인 사람들의 원한을 풀며, 온 나라 백성에게 두루 덕치德治를 베풀도록 지성을 쏟아붓는 왕의 기도문이다.

사실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도 고동치는 기도의 맥박을 짚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애 말기의 원숙함을 보일 때, 혹은 극한 고난 가운데, 놀랍게도 삼위일체의 오묘함을 기도의 감미로운 포용으로 연결시키는 신학을 보여준다. 생타티 기욤 (윌리엄) William of St. Thierry 의 아가서 주석은 기도를 성령의 입맞춤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는 진수성찬으로의 초대로 소개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포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만찬장으로 인도된다. 이러한 기도의 이해는 아득히 먼 구중궁궐의 족장 하나님을 향해 투사하는 종잡을 수 없는 육망의 기복적 기도, 초자연적 영적능력을 구하는 주문, 또는 압박한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 종교행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제 장애자 자녀를 고쳐달라고 매번 반복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회의론 던지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17세기 기도하는 마을의 위치와 Natick의 첫 엘리엇 교회 ©이연승 교수 제공

것이다. 히포의 어거스틴 Augustine of Hippo, 아빌라의 테레사 Teresa of Avila, 보나벤투라 Bonaventure, 제네바의 칼빈 John Calvin, 웨슬리 John Wesley, 존 플레처 John Fletcher, 잔느 귀욤 Jeanne Guyon, 피비 팔머 Phoebe Palmer 등, 성령의 손에 이끌려 오묘한 삼위일체적 교제의 달콤함을 노래한 인물들이 있다. 1738년 12월 31일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헛필드와 60명의 성도들은 밤새워 기도하며 송구영신을 맞는 중이었다. 새벽 3시, 1739년 1월 1일의 일을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성령 하나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우리들은 넘치는 기쁨의 강에서 더러는 환호성을 올리고, 더러는 마루 바닥에 쓰러졌다. 하나님의 임재에 경외와 놀라움에서 깨어나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런던의 한 모퉁이 페터레인의 철야기도는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생애 말기의 원숙함이란 어쩌면 불필요한 치장이나 완장을 떼고 나간 시키, 세상 거품이 빠진 후, 엑세서리의 퇴색을 직면한 연륜에서 나오는 순수함일지 모른다. 그러나 굳이 생의 말이 아니라도,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며 생의 핵심요소를 더듬을 때 기도의 광채가 선명해지기도 한다. 기도는 안식처일 뿐 아니라, 생의 최고 가치로 부상한다. 미국의 정신적 기원은 단연코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청교도에 있다고 한다.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은 청교도는 미대륙 정착 직후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자녀에게 경건한 신앙을 심겠다는 열망으로 척박한 미대륙에 길을 뚫었다. 메이 플라워 선상에서 두 달여 파도에 출렁인 후 육지에 내린 102명은 겨울이 지나자 절반이 시체로 변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자 죽음을 불사하며 거친 항해에 몸을 던진 청교도의 갈망은 광야에 길을 내고 꽃을 피우는 보배요 자원이었다.

1630년 청교도인들이 보스턴에 닿은 나흘 후 교회를 세운 이듬해, 영국 육스

포드 대학을 갓 졸업한 존 엘리엇 John Eliot 이 이 행렬에 동참했다. 청교도인 엘리엇은 기도가 인생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극명하게 표현하였다. 인디언들을 위한 정착촌, “기도하는 마을 Praying Towns”을 세우고, 그 이름에 그의 갈망을 담았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데시 qodesh, 헬라어로 하기오스 haggios 라 했던가. 둘 다 구별됨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전적타자”라 하던가. 엘리엇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성요소가 무엇보다 첫째 구별됨이요, 둘째 기도로, 셋째 공동체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디언을 구별된 기도 공동체에 초청하기 시작했다. 20년 지나자 14개로 늘어난 기도하는 마을은 2000명가량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내틱 Natick, 뉴튼 Netown, 말보로 Marlborough 등에 기도공동체가 세워졌고, 성경의 백부장, 오십부장, 삼부장이라는 이름의 마을 지도자가 세워졌다. 엘리엇은 인디언의 알곤퀸 Algonquin 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1663년 출간하였다. 이들 인디언들은 기쁨의 기도를 할 유행했을까? 적어도 그 지향은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인디언 보호구역 Indian Reservation 과는 판이했다.

비둘기가 아닌 미사일이 중동의 창공을 뒤덮고, 스페인 한 복판은 불길에 치솟으며, 프랑스 남부가 사커맨 잿더미로 변하는 21세기를 살고 있다. 이때, 기도하는 인물들의 삶과 신학이 유난히 흥미롭다. 명성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명성 너머 천상의 웅숭깊은 질서를 더듬는 기도, 영원한 진리를 향한 이들의 가슴비 없는 기도의 갈망이 시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교파를 초월하는 통찰을 분어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향연, 순결한 능력의 번짐, 변화산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영광이었다. 그 거룩을 갈망하고, 그 아름다움에 흠뻑 젖는 일, 하나님의 고통과 비탄에, 그 섭리에 동참하는 일이다. 가공할 심판과 우주적 역사의 웅장한 파노라마를 조망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치밀한 구원계획, 새하늘과 새 땅을 일구는 그 결의에,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보호하는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경륜을 응시함이 기도이다.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 천상의 분주한 다스림을 주시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미지 데이 imago dei 를 온전히 이루는 길이고 고된 여정에 끝없는 활력을 자양하는 비밀이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도는 천상과 지상을 잇고 천년의 역사를 잇는 녹슬지 않는 금줄이요 금방 찬란한 휘광으로 둘러싸인 성전이다.

교회학교 교사, 이제는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한다



고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
연구소 대표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사에게 필요한 새로운 역할은 무엇일까?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는 교사가 칠판 앞에서 성경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의 아이들은 영상, 숏폼, 이미지, 음악, 게임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교사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아이들 사이의 소통 방법이 막히는 것이다. 교사가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은 유명한 유튜브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거창한 장비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도 아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설교의 핵심을 한 장의 이미지에 담을 수도 있다.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낼 수도 있다. 교사가 직접 찍은 짧은 영상으로 주일을 기다리게 만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다.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교사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복음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사이고, 복음을 콘텐츠로 만들어 내는 ‘복음의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한다.

교회학교의 미래는 더 많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교사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교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나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교회학교 교사여, 이제 우리도 크리에이터가 되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만들고, 아이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여주자는 복음의 크리에이터가 되자.

박위 논란, 질투·허위·비하로 얼룩지다

황선우 작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변인



해선 안 됐다.

그런데 박위 논란 이후, 그가 꽤 높은 강연료를 받은 데까지 논란되고 있는데 이는 엇나간 비판이다. 누구든지 강연 시장 안에서 많은 청중을 동원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면 높은 강연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박위 본인도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맞게끔 높은 강연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일부러 봉사하듯 낮은 강연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방송인 김제동의 과거 강연료 논란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다. 김제동은 여러 발언대 위에서 시장경제에 반(反)하는 발언을 셀 수 없이 해왔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강연 ‘시장’ 안에서 자신의 가치가 강연료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말하니, 평소에 하던 발언과 모순되는 면이 많아 비판받기에 합당했다.

하지만 박위는 ‘강연료에서만큼은 모순이 없었던 사람이다. 물론 평소엔 “배려”를 강조하던 그의 ‘강연 내용’과는 이반에 그가 보인 모습에서 모순되는 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는 현재 강연 시장 안에서 가치가 떨어져 기존에 잡했던 강연료도 취소되었다. 당분간은 강연하기 어려울 거라 예상된다. 이처럼 돈과 관련된 건 시장 안에서 결정되면 되는 부

분이다. 그가 받았던 강연료를 보고 비난하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그걸 “정당한 비판”이라 할 수는 없다.

박위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이것뿐만 아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서는 그가 과거 만취 중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인 된 것, 장애를 딛고 성공적인 결혼을 이룬 것 등까지 비하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사고 난 경위에 대해 사실로 밝혀지지도 않은 무리로 그를 모함하고, 아무리 만취한 게 잘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만취 중 장애가 생길 정도로 사고 난 것에 대해 조롱하는 건 옳은가? 또한, 장애인임에도 많은 이들의 축복 안에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왜 대중은 박위의 이런 실수로 인해 그의 상처와 결실까지 모두 비하하기 바쁜가. 박위 논란이 이처럼 점점 장애인 비하 분위기가까지 만들고 있다.

우리는 박위 논란을 보고 ‘장애인의 길잡이는 정당인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도의 질문이면 충분하다. 비본질적인 걸 들추어나어 공격하거나 누군가를 비하하는 방향으로 논란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박위에 대한 실망이 한국인들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기 전에,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7월 산업생산 제자리… 설비투자 늘었지만 소비·건설은 감소

광공업 0.2% 증가·서비스업 1.3% 감소…
설비투자 7.5% 늘고 소매판매 2.4% 줄어

7월 산업생산이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광공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지만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4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관련 투자가 늘면서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와 건설투자는 모두 감소해 내수 회복세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전산업생산은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 4월 0.5%, 5월 0.4% 각각 감소한 뒤 6월에는 2.4% 늘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7월에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광공업 0.2% 증가… 서비스업 1.3% 감소**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다만 6월 6.7% 증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전자부품 생산은 20.7%, 1차금속은 4.2% 증가한 반면 자동차 생산은 4.5%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1.5% 줄었다. 내수 출하는 0.9%, 수출 출하는 2.3% 각각 감소했다. 재고율은 97.2%로 전월보다 3.4%포인트 상승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9%로 0.2%포인트 높아졌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는 2022년 2월 1.7% 감소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

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이 4.8%, 전문·과학기술이 2.7% 줄었다. 반면 정보통신은 3.5% 증가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금융·보험업 생산 감소에 대해 7월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높은 기온과 강수 일수 증가로 예술·스포츠·여가와 숙박·음식점업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소매판매 2.4% 감소…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모두 줄어**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4% 감소했다. 6월 2.7% 증가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7.7%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의복 등 준내구재는 1.4%,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1% 각각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5.6%, 승용차·연료·소매점

이 5.1%, 무점포소매가 3.1%, 전문소매점이 2.4%, 편의점이 0.9% 각각 줄었다. 반면 대형마트는 4.3%, 면세점은 2.2%, 슈퍼마켓·잡화점은 1.0% 증가했다. 이 심의관은 “승용차 판매는 6월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로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어난 뒤 7월에는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가전·통신기기도 전월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판촉행사 효과가 사라지면 서 소매판매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 7.5% 증가… 건설기성은 1.1%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5%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15.4%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도 4.2% 증가했다. 반면 건설기성은 토목에서 18.5% 늘었지만 건축이 7.4%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1.1%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전월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가자에도 양호한 생산·투자 흐름을 지속했다”며 “광공업 생산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2개월 연속 7% 내외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소비에 대해서는 “6월과 7월을 묶어 보면 4~5월보다 1.5% 증가했고, 8월 카드매출액 증가율도 확대되는 등 소비 회복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민생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성장 성과가 민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한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소비 파급효과 올해 1.7조원 전망”

이천·화성·청주 소비 증가 뚜렷… 반도체 호황, 올해 GDP 0.03%p 높일 가능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이 올해 소비를 최대 1조7000억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31일 한국은행의 지역 패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반도체 종사자 거주 비중이 높은 경기 이천·화성과 충북 청주의 월별 소비는 반도체 산업 노출도가 낮은 지역보다 최대 4%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추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소비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지역별 소비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결제액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비액을 기준으로 했다. 한은은 반도체 수혜지역에서 나타난 소비 증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6월까지 누적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소비 증가액은 약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과급 소비파급률 올해 21%…GDP도 0.03%p 높여** 세후 성과급 가운데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소비파급률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21%로 다소 낮아졌다. 다만 한국은행은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비 증가는 GDP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에는 GDP를 약 0.01%포인트, 올해는 약 0.03%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인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소비파급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내년 GDP 제고 효과가 0.08~0.12%포인트까지 커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고용 확대·소비 유입 규모가 파급효과 좌우** 한은은 향후 반도체 성과급의 소비 파급 효과를 결정할 주요 요인으로 고용 확대 규모와 추가 소득이 자산시장보다 소비로 흘러가는 정도, 소비 품목의 확산 범위 등을 꼽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임금 총액이 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인당 임금 상승에 집중될 때보다 신규 고용 확대와 함께 나타날 경우 소비 파급 효과가 더 컸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국내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고용까지 함께 늘어난다면 소비 효과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추가 소득이 주택 등 자산시장으로 얼마나 유입되는지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됐다. 한은은 같은 SK하이닉스 성과급 수혜지역인 청주와 이천의 소비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근

거로 들었다. 청주의 소비 증가폭이 이천보다 컸는데, 이천에서는 올해 초 성과급 규모가 커진 시기를 전후해 주택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은 “청주에서도 주택 구매가 소폭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이천에서 크게 나타난 것은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련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가 상품 중심 소비자 서비스 등으로 확산 필요** 한은은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 증가가 자동차와 백화점 등 고가 재량재에 주로 집중됐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 같은 소비 구조에서는 지출이 다시 국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소비→소득→소비’의 선순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향후 소비가 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으로 점차 확산되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지고, 반도체 호황의 혜택도 더 폭넓은 가계로 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산업 간 연계 효과를 높이고, 늘어난 소득이 자산시장보다 소비와 실물경제로 환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비가 서비스 등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9월 전국 아파트 2만2704가구 분양… 서울은 85가구 그쳐

전년 동월보다 15% 증가… 수도권 1만3537가구, 경기·인천에 99% 이상 집중

다음 달 전국에서 2만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전체 물량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지만 서울 공급은 85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 플랫폼 작방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6개 단지, 총 2만2704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8643가구다.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 1만9659가구보다 약 15% 증가했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년 동월보다 43% 늘었다. ◆**수도권 1만3537가구…서울은 1개 단지 85가구** 수도권에서는 총 1만353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국 예정 물량의 약 60%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개 단지 9544가구로 가장 많았다. 인천은 3개 단지 3908가구였고, 서울은 1개 단지 85가구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브라운스톤목동’ 8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2단지’ 1249가구와 ‘대십분당하이스트’ 1149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 2706가구 등이 주요 분양 단지로 꼽혔다. ◆**지방 9167가구 공급…광주·충남 비중 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방에서는 6개 지역, 10개 단지에서 총 916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권이 3216가구, 충남이 3152가구, 부산이 1183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지로는 광주 북구 ‘첼피언스시티1차’ 3216가구와 충남 천안 ‘두정역푸르지오그랑피크’ 1438가구 등이 있다. 다만 분양 예정 물량이 모두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달 분양 예정 물량은 당초 2만8015가구였지만 이 가운데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물량은 1만9140가구로 약 68%에 그쳤다. 시장 상황과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단지의 일정이 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공급지역이 넓게 분산되는 만큼 권역별 주택시장 흐름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자금 조달 여건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나래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시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목회상담치유

왜 그런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의 적응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회지를 자주 이동 하는가?
나는 목회를 실패한 것일 가?

◆ 답답하고 허전하고
심란할 때 상담해주세요!

이 종 운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6길4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물품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가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순종이 위대한 것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
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순종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난다. 순종은 결심으로 시작되지만, 그것
으로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 예수 구
원을 믿으며 머리도 동화하는 바를 삼으로 살기
가치가 있다. 신앙인의 길은 어느 한 영역에서가
에서 자신을 다루는 길이다. 마침내 그 위에서
주님께 나아드리는 성숙함에 이른다. 순종의
복은 때를 켜지 않지 않다. 그러나 분명하고, 깊으
할 수 없다면, 순종으로!" 이것이 요셉이 남긴
산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
한 완성하신 길이다. 그분이 결코 순종의 길
때,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때에 순종만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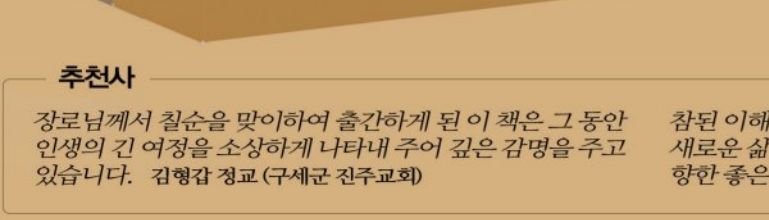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믿음의 열조들을 찾아서 윌리엄 케리 (1)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케리
구두 수선공이 위대한 Vision의 선교사로

1761년 햇벌이 따사로운 8월의 어느날 영국의 노스햄프턴셔의 작은 마을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응 애!’ 그것은 윌리암 캐리(William Carey, 1761-1834)가 하나님나라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캐리는 어려서 꽃과 나무와 새 그리고 곤충을 벗하며 자라난 전형적인 촌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특기는 나무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에 대한 욕구도 강했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매우 높던 시절, 그는 끈질긴 도전으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어인 라틴어와 헬라어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고교를 졸업한후 캐리는 아버지의 압력으로 구두수선공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두발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였기 때문에 구두수선은 유망직종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평생 신발만 어루만지다 죽을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그의 팔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79년 캐리가 19살 때, 한 기도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심령으로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

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는 이 한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세상과 타협하여 살던 미지근한 신앙을 화개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능욕을 받고자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어떤 학문보다 성경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구두공장 공장장에서 예수님의 선전 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웨슬리와 조지 휫필드가 이끄는 영적 부흥운동이 전 영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세계선교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버데인 교회에서 목회에 전념하고 있던 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캐리가 ‘죽 선장의 마지막 항해’ 라는 책을 읽고있을 때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바꾸어 놓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선장은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며 태평양의 알려지지 않은 섬들과 원주민들의 원시적인 삶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문명의혜택을 못받아 웃도 없이 코난과 포비처럼 살아가는 부족, 사람을 맛있게 먹는 풍습을 지닌 부족등...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책을 읽고 있던 청년 캐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맥박은 한차례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나인의 끈질긴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결단했습니다. 그 때부터 캐리는 세계지도에 이미 알려진 나라의 인구종교등을 표시하며 선

교지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그의 기도 목록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지도를 꼭 꺼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교회는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선교운동에 눈을 돌리지 않았으며, 선교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국한 시켰습니다. 세계선교에 눈을 뜨게 된 캐리는 교회안의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야겠다고 방향 잡았습니다. 어느날 목사들의 모임에서 캐리는 해외선교에대한 그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한 원로목사가 일어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그만 열네로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열--마든지 할수 있을걸세.’ 이것은 그의 선교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리안에 불붙은 세계선교에 대한 vision과 성령의 불은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캐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 곧 우리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1792년 봄 그는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찬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세계선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

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책은 루터의 95조항과 함께 베스트 셀러가 되었으며, 세계선교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캐리는 침례교회연합회 모임에서 이사야서 54:2,3 ‘네 장막터를 넓히라. 이는 네가 좌우로 파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항패한 성읍들로 사람 살곳이 되게 할것인나라’ 말씀을 전하며, 간절한 기도가운데 여러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었습니다. 그는 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세계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때인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시도하려했습니다. 그의 비전에 넘치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목사들이 당장에 그 다음날로 유명한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7년동안 아무도 그를 이해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배척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현실에 절망치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였을 때 18세기의 타락한 영국을 구원하였을뿐 아니라 세계각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계속)

열방선교단 제공

바이블지식IN

아내를 찾을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외에 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는 그의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 최고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여성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14)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경건하고 온전한 결혼 생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료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같은 명에”를 메는 완전한 경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여성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녀가 영적으로 당신과 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같은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부감의 자질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감정적 또는 육체적인 매력 때문에 결혼하는데, 이는 실패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경건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경건한 여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을 알려줍니다. 먼저 주

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22-24). 만일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남편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영적인 풍요함을 잃어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채우시도록 하라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여인은 훌륭한 아내의 후보자입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여성을 위한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11). 다시 말해, 훌륭한 아내는 지나치게 잘난 척하지 않으며,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고, 남편 곁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아내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주님과와의 관계와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가장 먼저 초점을 두는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의 책임은 남편에게 더 큼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와 가정의 머리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머리가 되는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 딴 것입니다 (에베소서 5: 25-33). 그 관계는 사랑에 근거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영적 관계는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자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남성의 표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질에 기초하여 현명하게 아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역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남자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와 그의 아내에게 바라시는 참된 연합의 결혼 생활을 세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갯케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31:3 NIV
Since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for the sake of your name lead and guide me.

- since (접속사): ~이므로
- fortress: 요새(要塞)
- for the sake of your name: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 lead: 이끌다
- guide: 인도(引導)하다

시편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영혼의 양식(68)*

예수 믿고 변화된 삶(1)

본문

로마서 12장 1-8절

서론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본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바로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12장은 매우 중요한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롬 8:1).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 8:39). 이 모든 복음을 설명한 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1. 첫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죄인을 용서하신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헌신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몸입니까? 우리는 몸으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가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일하고, 발로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사람을 만나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육체만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은 번제를 드릴 때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병 들고 상하고 쓸모없는 것을 처리하듯 하나님께 드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 자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가져오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제물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린 것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닙니다. 드린다는 것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쉽게 말하면, “이제 네가 제물이 되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또 다른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나를 위해 드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감사의 응답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살아 있는 채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구약에서 제물을 살렸듯이 나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숨긴 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겔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이것이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라도 산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2. 둘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이 세대”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체제와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받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주라고 하십니다. 세상

은 값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성공보다 충성을, 경쟁보다 섬김을, 보복보다 용서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경쟁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먼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2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마음이 새로워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로, “나에게 유리한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로,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로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는 변화입니다.

3. 셋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교회

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변화된 사람은 먼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형편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만큼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 에 비유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구경꾼이 아니라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가장 먼저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품고,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 주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합니다.

6절부터 바울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여러 은사를 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가 더 크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은사는 명예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직책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책임이 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교회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변화가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겨우 맞춰 오는 사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받으러 오는 사람에서 섬기러 오는 사람으로, 누가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에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으로, 직분으로 대접받으려는 사람에서 직분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해 제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결론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로마서 12장은 “너희 몸을 드리라”로 시작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면 삶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방향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관계를 드립니다. 내 계획을 드립니다. 내 남은 생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일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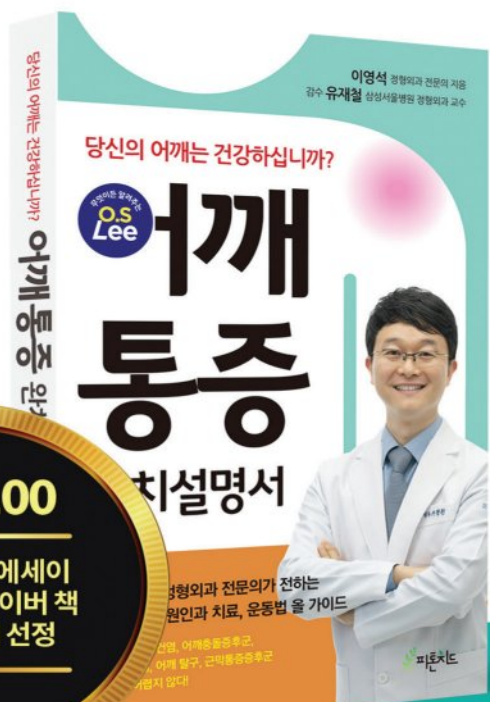
마무리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와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원호 목사 (서울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계

2026년 9월 1일 교계 단체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14주년 기념예배 및 한장총 코람데오 교회부흥협의회 창립예배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장총)	11:00	서울 중흥교회 (엄바울 목사 시무)
총회창립 114주년 기념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11:00 ~ 12:00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교신 교단 및 산하 교육·선교 사업	대한예수교장로회(교신) 총회세계선교회(KMT) / 교신대학교 및 미주교신	• 20:00 ~ 22:00 (ETI 코스) • 09.01 당일 개강 (ICF 코치과정)	• 온라인(ZOOM) / 지정 교육장 • 교신대 지정 교육장
1. ETI: 능력과 변혁 코스 및 FTC (1차시 개강) 2. 제4기 ICF 전문코치(Level 1) 교육과정 가을학기 개강			
선교적 삶 온라인 강좌 《하나님 백성의 선교》(i LAMS 1차시 개강)	인터서브코리아 (Interserve Korea)	20:00	온라인 (ZOOM)
베나섬예담선교 2차 정기지역 개시 (목회자 AI 비서 활용 및 에셀나무힐링)	베나섬예담선교	매주 화·수요일 (사전 예약 시간)	사전 전화 예약 장소

2026년 9월 1일 화요일, 한국 개신교계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14주년을 기념하는 연합 예배와 각 교단 및 선교단체의 가을학기 전문 교육·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일제히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9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중흥교회(엄바울 목사 시무)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14주년 기념예배'와 '한장총 코람

데오 교회부흥협의회 창립예배'를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역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총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창립 114주년 기념예배'를 거행할 예정이다.

교단 산하 기관 및 전문 선교단체의 가을 사업 과정도 당일 저녁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교신)

총회세계선교회(KMT)는 9월 1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5주간 진행되는 'ETI: 능력과 변혁 코스 및 FTC' 1차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교신대학교 및 미주교신 관련 기관도 당일 '제4기 ICF 전문코치(Level 1) 교육과정' 가을학기 학사 일정을 개강할 예정이다.

초교과 선교단체인 인터서브코리아는 9월 1일 저녁 8시 온라인 화상회의

(ZOOM)를 통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저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교재로 진행하는 '선교적 삶 온라인 강좌 (i-LAMS)' 1차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베나섬예담선교는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AI 비서 활용 및 전인 치유 사역 등 정기사역을 사전 예약제로 개시할 예정이다.

선교

2026년 9월 1일 선교단체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AI 시대의 캠퍼스 선교 (12주 완성 과정 개강)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한국UBF)	09:00 ~ 11:00	온라인 (Zoom 실시간)
9월 정기 카이로스 기도회	모퉁이들선교회	19:00	서울 용산구 한남동교회 (대사관로34길 31-9)

2026년 9월 1일 화요일, 대학생 선교 및 북한 선교 전문 단체들이 각각 전문 사역 훈련 개강과 정기 기도회를 당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한국 UBF)는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AI 시대의 캠퍼스 선교 — 한국 UBF 지부장과 사역자를 위한 12주 완성 과정'을 온라인(Zoom)으로 개강한다.

이번 과정은 9월 1일 1회차 강의를 시작으로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에 운영되며, 사역자의 AI 도구 활용 능력 배양 및 캠퍼스 사역 실습을 다룰 예정이

다. 교육은 강의 50분과 실습 50분으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한국 UBF 본부 지원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모퉁이들선교회는 9월 1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교회(대사관로34길 31-9)에서 9월 정기 '카이로스 기도회'를 개최한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저녁에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오프라인 현장 모임으로 진행되며, 나라와 민족, 북한 주민 및 지교회교회 성도, 복음 제한 지역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NGO

2026년 9월 1일 기독교 NGO 주요 일정표			
행사 및 소식명	주최 및 주관	시간	장소
제10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reat Music Festival)	주최: 하트-하트재단 (후원: SK이노베이션, 문화체육관광부, SM C&C,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00 ~ 16:30 (로비 프로그램 12:30부터)	서울 코엑스(COEX) 3층 오디토리움
9월 1일, 국월데이 기념 특별감사전	주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매장별 운영시간 내 (종일)	전국 국월스토어 주요 사업장(매장)
롯데 벨류 for ESG 5기 대학생 봉사단 모집 접수 개시	주최/주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롯데지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9:00 ~ 24:00 (접수기간: 2026.09.01 ~ 09.30)	온라인 공식 접수처

2026년 9월 1일, NGO들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경연, 장애인 일터 기념 행사, 청년 봉사단 모집 등 단체별 주요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트-하트재단은 9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제10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reat Music Festival)'를 개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문화체육관광부, SM C&C,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본 행사에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6개 발달장애인 연주단체의 본선 경연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경연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는 로비 내 포토존, 특별전시, 체험존 등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장애인 일터인 국월스토어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9월 1일, 국월데이 기념 특별감사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해 온 국월스토어의 설립 취지를 되새기고, 매장 이용객 및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 행사로 운영될 방침이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기아대책)는 롯데지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기획한 '롯데 벨류 for ESG 5기 대학생 봉사단' 참가자 모집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공식 접수처를 통해 진행되며, 선발된 단원들은 ESG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국가가 아이들 지키는 울타리 되어야”

세이브더칠드런 영세이버,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 아동 보호를 위한 연합 캠페인 진행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8일 대전광역시의회 로비에서 대학생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 영세이버 17기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부터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예방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연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세이버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아동권리 이슈에 대한 캠페인과 아동 참여 지원 활동을 펼치는 대학생 권리옹호 서포터즈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영세이버들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체계를 상징하는 대형 울타리 퍼포

먼스를 진행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2명이 살아남았고, 생존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9세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생존 아동 10명 중 6명이 사건 이후에도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환경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국내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별도 파악하고 기록하는 공식 통계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사건 이후 생존 아동의 안전과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세이브더칠드런

피해 정도, 보호 조치 및 회복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영세이버들은 ▲비속살해죄 도입 ▲'자녀 살해 후 자살' 아동학대 규정 ▲생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보호와 회복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 살해를 가정 안에서 발생한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책임을 고려해 더욱 엄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비속살해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생존 아동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존 아동의 피해와 안전 상황을 국가가 확인해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이버들은 “이번 대형 울타리 퍼포먼스는 부모라는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져도 아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뜻과 함께 아이를 지

키는 마지막 울타리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의 존재와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비속살해죄 도입과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4월부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생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홈페이지와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비속살해죄 도입과 생존 아동의 발견·보호·회복을 아우르는 국가 책임 기반의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UBF, 2026 여름방학 학생신앙교육 온라인으로 진행

80명 이상 학생 참여

UBF(대학학생경원기전교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온라인 신앙교육이 진행됐다.

UBF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여름방학 학생 신앙교육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십일조 교육과 일용할 양식 교육, 소감쓰기 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강의는 1시간씩 총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각 강의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8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해 신앙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시간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는 재정구제부에서 정여호수아 목자(인제)의 인도로 '여호와와 것, 십일조'(대위

기 27장, 말라기 3장)를 주제로 한금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십일조가 무엇인지, 십일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십일조를 드릴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웠다.

이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는 일용할 양식부에서 감재석 목자(성동)의 인도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니'(출애굽기 16장)를 주제로 일용할 양식 교육이 진행됐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셨던 만나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말씀의 은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는

교육부에서 노요셉 목자(울산)와 허도전 목자(가천)의 인도로 소감이론 교육과 소감쓰기의 유익에 대한 간증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소감쓰기가 단순히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법적으로 성경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한 뒤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이를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또한 소감을 작성할 때 얻을 수 있는 10가지 유익에 대해서도 배우며,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나누는 소감쓰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교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연속으로 진행됐다. 장시간 이어진 강의였지만 참석한 학생들은 교육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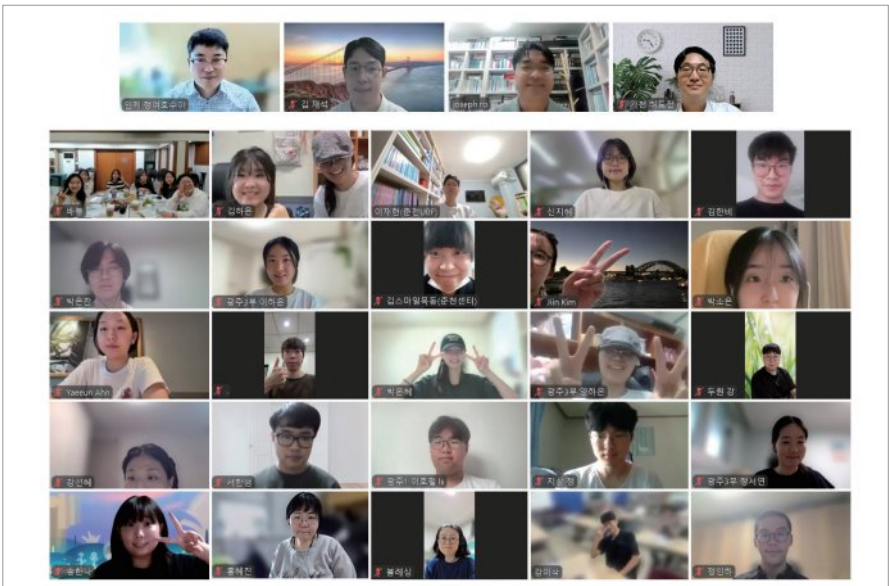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습을 보였다.

각 강의를 맡은 목자들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간증을 전하며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여름방학 학생 신앙교육은 지난해보다 참석 인원이 늘어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십일조와 일용할 양식, 소감쓰기 등 학생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각 강의와 개인 간증을 통해 학생들이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지난해 행사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안정적인 은혜로운 교육으로 진행됐다.

장요한 기자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된 여름방학 학생 신앙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이 화면을 통해 십일조와 일용할 양식, 소감쓰기 교육을 받으며 말씀을 배웠다. ©UBF

성결대, FDU 밴쿠버 캠퍼스와 MOU 체결

GMBC 기반 온라인 공동수업·프로젝트 추진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가 미국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FDU) 밴쿠버 캠퍼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글로벌 교육협력 확대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학생 및 교수 교류와 공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결대는 특히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GMBC(Global Meta Bridge Campus)를 활용해 양 대학 간 협력을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성결대는 GMBC에 FDU Vancouver Campus와 연계한 가상 교육공간을 구축하고 양 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먼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공동 수업과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한국과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실제 오프라인 교류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성결대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교류와 GMBC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한-캐 대학생 Culture Mining 국제교류, 학점교류,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ON&OFF 하이브리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성결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나다 대학 및 현지 기관과의 국제협

력에도 이어지는 행보다.

성결대는 앞서 캐나다 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UFV), Trinity Western University(TWU), Greater Langley Chamber of Commerce(랭리 상공회의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학생교류와 공동연구, 온라인 국제공동수업(COIL), 산학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FDU Vancouver Campus와의 협약을 계기로 캐나다 대학 및 경제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양 대학은 특히 관광·항공·Hospitality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협력도 검토하고 있다.

성결대학교는 2027학년도에 신설되는 스마트관광항공학부와 FDU Vancouver의 Hospitality & Tourism 관련 교육과정을 연계해 공동교육과 학생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광과 항공, Hospitality 분야를 중심으로 양 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결해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FDU Vancouver Campus의 캠퍼스 이전도 이번 협력 확대와 맞물려 있다.

FDU Vancouver Campus는 2026년 가을 Vancouver Oakridge Park의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예정이다. FDU는 Oakridge Park 신캠퍼스를 최신 강의실과 실험실, 학생지원시설, 협업공간 등을



성결대학교와 미국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FDU) 밴쿠버 캠퍼스 관계자들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Damien Holland FDU 운영총괄이사, 손승표 성결대학교 글로벌물류학과 교수, Ramin Shadmehr FDU 부총장, 장영재 주밴쿠버 대한민국 부총영사, 이준서 성결대학교 스마트관광항공학부장, Lester de Guzman FDU 마케팅홍보총괄디렉터). ©성결대 고신대

갖춘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고 있다. 새로운 캠퍼스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체험형 교육과 산업계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 및 산학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성결대는 이러한 FDU Vancouver Campus의 새로운 교육환경과 연계해 양 대학 간 학생 및 교수 교류와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실질적인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정희석 성결대학교 총장은 “양교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GMBC

를 중심으로 온라인 국제교류에서 해외 현장교육, 학생교류, 학점교류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FDU는 미국 뉴저지에 기반을 둔 대학으로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도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FDU Vancouver Campus는 2026년 가을 Oakridge Park 신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교육과 산학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요한 기자

계명대, AI로 1200만 어절 한국어 역사 자료 분석

한국연구재단 사업 선정...
연구비 약 19억원 확보
2032년까지 역사 언어 빅데이터·분석 플랫폼 구축



계명대학교 ©학교 측 제공

◆ 디지털 휴머니티즈와 AI 결합한 역사 자료 연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도 인문사회연구 소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규모 한국어 역사 자료 연구에 나선다.

한국학연구원은 오는 9월부터 2032년 8월까지 약 1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디지털 휴머니티즈와 AI를 결합한 역사 자료 지능형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디지털 휴머니티즈 기반 역사 자료 지능형 분석 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 중심의 통시 문법 지식구조 연구'다.

이번 과제에는 국어사와 국어정보학, 전산언어 분야 연구진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15세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방대한 한국어 역사 자료를 AI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와 사회·문화의 변화 과정을 규명할 계획이다.

◆ 1200만 어절 말뭉치 구축...분석

정확도 95% 목표

연구 대상은 약 1200만 어절 규모의 한국어 역사 자료다. 연구진은 '21세기 세종계획 원시 말뭉치'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지능형 형태소 분석 말뭉치로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UTagger-훈민정음 TCM'에는 딥러닝 기반 맥락 인식 기술과 트랜스포머(Transformer),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역사 자료의 분석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역사 언어 빅데이터와 지능형 분석 플랫폼은 한국어 변천 연구를 비롯해 고전문헌 자동 번역, 역사 자료 검색·분석,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장요한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커뮤니케이션의 지혜 1



찬양팀과의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들이 영적인 고갈과 함께 겪는 또 하나의 갈등은 찬양팀과의 갈등일 것이다. 하나의 예배를 위

해 같이 수고하는 팀인데도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서로 간에 긴장이 조금씩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서로의 필요에 대한 요구와 해결책에 대한 소통에서 오는 차이인데, 대부분 뮤지션들이 요구

를 하고 엔지니어가 들어줘야 하는 위치일 것이다. 뮤지션들의 입장에서 연주가 불편한데 엔지니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 불신이 쌓이는 것이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뮤지션들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불만을 제기해 오니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서로가 조금씩 몸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먼저 엔지니어는 철저히 섬기는 위치임을 기억하며 '예스맨(Yes man)'이 되라고 조언하고 싶다.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더라도

대답은 과격한 "NO!"가 아닌 "그래, 한번 해볼까?"인 것이다. 가계를 잘 만지는 것보다 이런 겸손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엔지니어가 전체 멤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팀의 화합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뮤지션들은 엔지니어들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진 못해도 최소한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저자의 경우도 엔지니어이지만 밴드와 음악

이나 악기 이야기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다. 뮤지션과 엔지니어는 믹싱 콘솔을 인터페이스(Interface: 상호작용의 수단)로 함께 연주하는 관계이지 결코 대립의 관계가 될 수 없다. 밴드 멤버들이 알미울 정도로 정리 정돈을 도와주지 않는 다거나 지속적인 무리한 요구로 상처를 받는다면 혼자 고민하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찬양 인도자나 목사님을 찾아가 문제점을 상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우리는 모두 대화가 필요하다. 엔지니어가

찬양팀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듯 하다.

◆김건수

버클리 음대에서 뮤직 프로덕션 앤 엔지니어링을, 뉴욕대학교에서 뮤직테크놀로지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동아 방송예술대학교 음향제작과 전임교수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 스튜디오 (KOCCA)에 재직 중이다. 참여한 작업들로는 '최치우 다이나믹 재즈 퀵리테(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등의 음악감독으로 CCM사역자 김명식 '사람을 살리는 노래' 등이 있다. 저서로는 『뮤지션을 위한 사운드 시스템 가이드북』(예술, 2010), 『뮤지션을 위한 홈 레코딩 스튜디오 가이드북』(예술, 2011), 『찬양 예배를 위한 사운드 시스템 가이드북』(예술,2016) 등이 있다.

굳은 마음을 위한 부드러운 음악 1

우리 각자의 취향이 무엇이든 간에 음악에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보살피어 도움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족보로 거슬



김영국 목사

러 올라가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창 4:21)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150개의 노래로 된 책(시편)을 성경의 한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잘 배우거라. 이것은 나의 찬송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들의 절반 이상이 다윗에 의해 쓰였는데, 시들 중 일부가 사울이라는 광인의 위협적인 존재 아래서 쓴 시들로 다윗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음을 보여준 후에 사울에 대해 무언가 불안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삼상 16:14-15).

우리는 사울이 씩씩하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의 성령이 악령이 오기 전에 이미 사울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성경구절을 읽고 그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어떤 부흥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주려는 도구로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육신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거두셔서 더 이상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위의 성경구절이나 삼손이 델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는 사사기 16장 20절 구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를 인용합니다. 또는 시편 51편 11절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한번 받은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섭고 끔찍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 문제에 관한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시기 전(행 2장)에는 하나님의 영은 다윗과 세례 요한 이외에는 다른 어떤 믿는 자에게도 영구적으로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두 사람에게만 영구히 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하기도 하고 떠났다가 다시 임하는 것이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때 성령에 의하여 보증(remain sealed)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세례받도록 권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세례를 받아 성령에 의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거기 계시서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 안의 형제들이여 안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 출처 : 『Soft Music for a Hard Heart』 by Charles R. Swindoll



이선종 찬양예배자

가난하고 심심했던 어린 시절 찾아오신 손길을 기억한다. 심심함이 길어질수록 새날에 대한 눈이 빛났다. 처절하게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꿈꾸는 자는 있다. 고달픈 가난에서도 꿈꾸는 자는 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도 꿈꾸는 자는 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 속하면서도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한 평범한, 앞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은 한 이름 없는 아이에게도 꿈꾸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가?

만약 이런 일이 이런 자에게도 일어나는 현실에 살고 있다면 그런 자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특별한 외적인 영성이 있다고 믿게 된다. 이런 시시한 나라에서 깊은 영성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그자의 심심함에 간섭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이 도저히 새로운 것 같지 않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것이라고 본 사람은 없었다. 조선의 보릿고개는 힘에 부치도록 치열한 가난과 고난과 강요된 게으름과 아픔을 숙명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여전히 심하게 고달픈 세월에 노출되었으며 남정네들은 전쟁과 생계에 상처 난 채 세월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처럼 잔디가 없는 마을에 신작로가 생기면 흙먼지가 오히려 오랫동안 잠자던 꿈의 화신이 영성을 깨웠다. 그래서 신바람이라고 했던가? 새로운 것은 그래서 늘 새 바람을 불러왔고 이 바람

은 사람을 신앙으로 일어서게 했다. 찌든 삶에서 일으키는 이 놀라운 가슴운동. 이제 정신 차리고 뒤를 돌아보면 이 마을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 그토록 긴긴 고통의 침묵인 '심심함'이었음을 안 사람은 많지 않다. 심심함은 꿈꾸게 한다. 현대인들은 심심함을(boring) 극도로 싫어한다. 그들은 꿈꾸는 세월의 고통에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현실에 없는 즐거움을 찾는 데 익숙하지 않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인 꿈꾸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고난이 없는 심심함은 죽은 시간이지만 고난이 있는 심심함은 꿈을 꾸도록 주께서 함께하신다.

몇년 전 매우 예쁘고 유명하고 똑똑한, 꿈에 부푼 연예인 젊은이가 성공한 심심한 남자들에게 농락당하다 상처를 받고 삶을 접었다. 현실에 심심할 틈도 없이 잘나가는 자들이 어쩌다 심심해지면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권력과 돈으로 유흥을 산다. 그게 너무 좋으면 아주 덜하여 고통이 된 심심함에 처함보다 오히려 못하게 된다. 더 이상 날갯짓할 수 없게 되면 꿈꾸는 힘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심심함에 고난이 없었으니 이를 일으킬 힘은 없고 장난질이나 했던 것이다. 그 장난에 재능 있는 젊은 연예인은 죽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여전히 이 사회가 꿈꾸기를 바랐던 거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고통을 생명을 걸고 알렸다. 하지만 이 시대와 이 민족은 이미 약하여 그의 생명의 값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잘나가는 이의 사회는 불가불 심심함

을 무료하고 악하게 하지만 잘 나가지 않는 이의 사회는 불가불 심심함이 고통이 되고 내성이 된다. 잘 나가지 않는 이의 내성은 꿈을 키우는 동력이 된다.

찬양은 아무것도 진전할 수 없는 줄고 있는 마을에서도 소년을 꿈꾸게 한다. 찬양에는 배고픔과 고난과 아픔과 무의미와 허무를 잊게 한다. 그리고 새록새록 영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조용히 숲속에서 온 주님의 계시와 임재를 꿈을 향한 건널 수 없는 달음박질을 시작한다. 내적 동요가 무한히 터져 나온 것이다. 절망의 삶에서 치른 심심함은 끝이 없는 열정과 감사의 삶으로 연장된다. 찬양은 삶 전체에 일어나 결국 드러나고야 마는 강력한 내적 증거다.

주님, 아직 잘나가지 않는 북쪽 사회의 어린 이와 여성들을 주께 올립니다. 그들의 고난과 심심함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꿈을 간섭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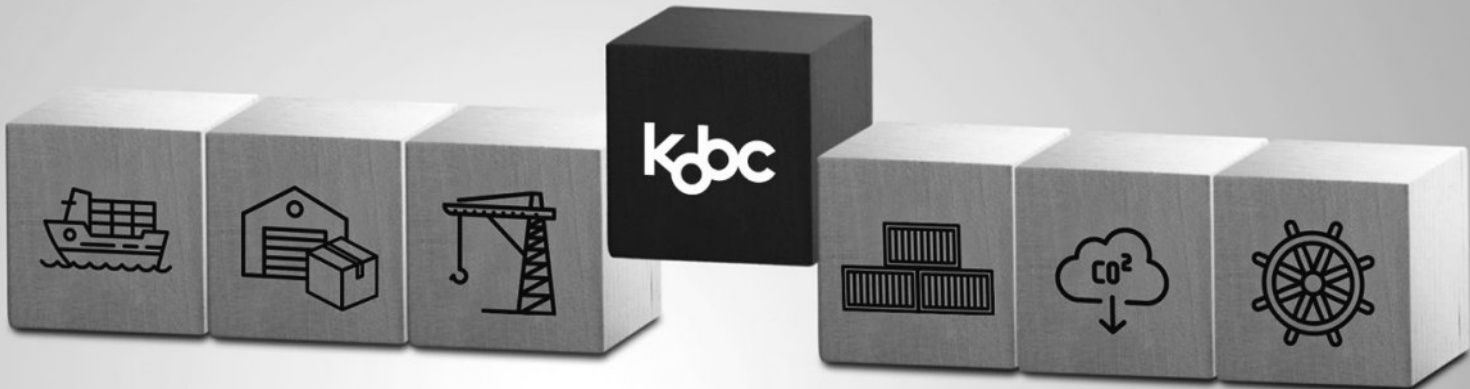
◆이선종 목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
VKCC 지휘자
성서 번역가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백지영·김조한 등 크리스천 가수 참여한 ‘시편 25편 One Wish’ 발매

시편 150편을 새로운 찬양으로 만드는 '시편 150 프로젝트'의 스물다섯 번째 앨범 '시편 25편 One Wish'가 발매됐다. 이번 앨범에는 크리스천 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시편 25편 One Wish
©인피니스

기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김조한과 Zero(제로)를 비롯해 여성 보컬리스트 백지영, 빅마마 멤버이자 한양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인 박민혜, 밴드 몽니의 보컬 김신의, 울랄라세션 메인보컬 김명훈,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아진이 등이 함께했다. 시편 25편은 고난과h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바라보는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강함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가르쳐 달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앨범 타이틀곡 'One Wish'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바탕으로, 각자 이루고 싶은 소망과 꿈이 있지만 그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끝까지 그 뜻 안에 머무는 것이 단 하나의 소원이라는 고백을 담았다. '시편 25편 One Wish'는 김조한이 작곡과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조은희가 작사

하고 김진훈이 편곡했다. 김조한은 "음악이라는 은사를 받았기에 주님을 위한 찬양곡을 준비하고 싶었다"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 최선을 다한 헌물로 드리고 싶었고,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참여 아티스트들과의 작업에 대해 "각 가수에게 문이 열리고 그들의 재능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보여주도록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를 만난 듯한 특별한 순간이었고, 프로듀싱의 모든 순간이 정말 즐거웠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곡을 듣는 이들을 향해 "이 노래가 아직 찾고 있는 모든 분과 삶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분들에게 달기를 바란다"며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답을 기다리도록 배우게 되었다. 답을 찾는 모든 분께 기도 안에서 그분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권면했다. '시편 25편 One Wish'의 뮤직비디오는

'들어볼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앨범은 국내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시편 150 프로젝트'는 구약성경 시편 150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를 아티스트들과 새로운 노래로 만들어 만지 않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까지 각 시편을 바탕으로 새로운 찬양을 제작하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영 기자

CTS문화재단 제3대 이사장에 이철 감독 취임

서울 CTS아트홀서 이취임 감사예배 개최

기독교 문화 확산과 다음세대 양성을 위해 문화선교 사역을 이어온 CTS문화재단이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했다. CTS문화재단은 2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CTS아트홀에서 '이사장 아취임 감사예배'를 열고 제2대 박래창 이사장의 이임을 기념하는 한편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철 감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CTS기독교TV(CTS) 임직원과 CTS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재단의 문화선교 사역을 이끌어 온 박래창 장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새롭게 재단을 이끌게 된 이철 감독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감사예배는 CTS 사목실장 이용윤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우원근 이사의 기도에서 이어 CTS 하모니코러스가 특별 찬양을 통해 예배의 문을 열었다. 설교는 CTS 공동대표이사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인 장병생 목사

가 맡았다. 장 목사는 '물 근원을 맡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기독교 문화의 근원을 바로 세우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목사는 "물의 근원이 맑아야 흘러가는 하수가 맑듯이 우리 사회 문화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새롭게 출발하는 CTS문화재단이 혼탁한 세상 문화 속에서 생명의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고 전하는 맑은 샘물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2부 아취임식에서

는 이임하는 박래창 장로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새롭게 CTS문화재단을 이끌게 된 이철 감독에게는 취임 명패가 수여되면서 제3대 이사장 취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CTS문화재단 제1대 이사장을 지낸 CTS 감경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단의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감 회장은 "지난 시간 CTS문화재단이 우리 사회 곳곳에 기독교 문화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로 기도하며 동역하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문화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이 힘차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대 이사장으로 재단을 이끌었던 박래창 장로는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문화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를 전했다. 박 장로는 "지난 임기 동안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문화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신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CTS문화재단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문화사역의 열매가 풍성이 맺어지도록 기도도 항상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철 감독은 앞으로 CTS문화재단이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확산하고 다음세대를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감독은 취임사에서 "CTS문화재단



CTS문화재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철 감독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CTS

이 문화의 힘으로 복음의 가치를 나누고 다음세대를 세우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공공과 민간의 선한 자원을 연결하는 공익문화 플랫폼으로 재단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광림교회 제38회 호렙산 기도회 38일차 40 하나님의 손길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1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1일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125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0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2026 명성교회 9월 특별사백집회
0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지구촌-김우준 30 생명의 말씀 샘솟는-최병남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비전설교 세미나 (이은성) 50 GOODTV NEWS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성교회)(200회) 5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202회)	00 생명의 양식 정음(유성택) 30 말씀의 능력(전택식)(598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0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대전한빛-백용현 50 생명의 말씀 영광제일-이기웅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사랑의 메시지 대차순복음 (한 별) 50 사랑의 메시지 원남 (권기웅)	30 신앙회복 프로젝트 〈민애야 산다〉(10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737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36회)	00 청주금천교회 주일예배설화 강민진 목사
0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27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제인지 더 월드 케나 편(분당한신교회 이은재 목사)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1일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693회)	00 하나님의 음성(19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550회) 마태복음 46강	00 선교지에서 온 편지(20회) 필리핀 사 사 선교사 2부 30 선교지에서 온 편지(21회) 필리핀 정수경 선교사 2부
0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3566회) 진선규, 박보경 부부 2부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사무엘 6장 이규호 목사	3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00 [말씀] 공진수 목사(목양교회)(11회) 4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1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11회)	10 새롭게하소서(11488회) 윤성철 목사 1부	00 김재원의 꿈아래(30회) 탁구공에 실은 복음-양영자 선교사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0 THE NEW 하늘빛향기(25회)	00 CBS NEWS 10 20 성서 700 도시여행(16회)	00 강연쇼 통(77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5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35회)
11:00	00 7000마라톤-예수사랑여기에 고한남부교회 방은근 목사 50 신앙예배시	00 노크토크	1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70회) 50 Q&A 107 소요리문답(17회)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108회)	00 소문난 성경교실(747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13강 은혜로 읽는 창세기: 피 묻은 채색 옷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43회) 50 성지가 좋다(545회) 요르단, 마케루스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군포제일-권태진	00 GOODTV NEWS 2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 30 행복한 썬더 평택성일(김성곤)	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1회) 2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교회)(347회)	00 감신대 화요채플(98회) 30 TV강단 필그림(김형석)	20 말씀의 창 은정강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안양서부-전승환 30 신앙예배시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27회)	00 행복한 썬더 명륜중앙 (손익식)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성남 (양병열)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106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63회)	00 울포렐(767회)	30 비전메시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도규 목사
14:00	00 [생방송]Calling GOD(2560회) 50 지금 선교해YOU	00 GOODTV 특별간증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1일 20 [말씀] 이동원 목사(자구촌교회)(876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대민) 30 새롭게하소서(11113회) 정유나 수행비서 1부	00 감상한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179회)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200회)
15:00	40 7000마라톤-예수사랑여기에 고한남부교회 방은근 목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균	00 [말씀] 김한오 목사(베를교회)(325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1일	20 CBS 성서학당 (신우민)(3580회) 민수기 21강	00 2026 명성교회 9월 특별사백집회
16:00	30 생명의 말씀 분당햇불-이재희	0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30 행복한 썬더 평택성일(박충권)	00 하용주 목사의 오후복음 강해(56회) 4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1회) 50 [말씀] 백상욱 목사(오늘의교회)(11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교과(11회) 50 예수 영광의 면류관(9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김하나 목사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50 신앙예배시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사랑의 메시지 충만한(알다웃)	30 [말씀] 박신용 목사(열바인온누리교회)(305회)	50 영혼의 양식 구세군대한분영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6회)
18:00	00 생명의 말씀 백송-이순희 30 부흥 아게인 순천하늘샘교회 / 오영재 목사	10 행복한 썬더 순복음금정 (김현근) 40 더 깊은 울림 한성 위심	10 RE바이블(43회) 50 예수동행집회(40회)	00 TV강단 용인송전(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참예(국명호)	00 말씀의 창 홀리씨즈교회 시대전 목사 3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츰(33회)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19:00	20 더 초존 시즌1(다빙)(2회) 15세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정맛비	00 예수동행집회(40회)	00 이영훈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625회)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령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생명의 말씀 송도가나나-김의철	00 신의 2수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전주초대 (이정은) 40 노크토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1일 2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선한목자교회-(73회) 40 미션로그 - 끝나지 않은 선교이야기(6회)	00 CBS비전특강 윤치복 목사의 총알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 인헌재일(이재일)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90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메신저스 김진교 선교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27회) 50 CTS뉴스	40 GOODTV NEWS 12세	00 상영교회 주일예배 2026년 07월 21일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550회) 마태복음 46강 50 살롬 살롬(44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210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사무엘 6장 이규호 목사	00 다나열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1일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43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88회) 윤성철 목사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420회) 20 소문난 성경교실(744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10강 은혜로 읽는 창세기: 기다림의 시간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밀레니엄특강 이종표 목사 7강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7월 아이들편의 당신의 강정은 안녕하십니까?(1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1일 5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1회)	10 예수 영광의 면류관(9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74회) 5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
00:00	00 Calling GOD(2560회) 50 주성인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행복한 썬더 뿔뿔중앙 (안호성) 40 다큐 더 로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1일 20 [말씀] 반태효 목사(방주교회)(130회)	10 성서 700 도시여행(16회) 50 성경탐답 이것이 궁금하다(45회)	00 한소망교회 한밤의 기도회(130회) 40 성경 속 인물사
01:00	00 내가 매일 기쁘게(3564회)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2부 50 위킹온더바이블-성지탐방(14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찾아서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중동 (김경문) 4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87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282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348회) 40 CBS 비전특강 윤치복 목사의 총알론 특강	00 선교는 지금 219회
02:00	10 CTS특집다큐 창조 그 진실의 기록	10 사론의 꽃 필 때	20 [말씀] 감형석 목사(자구촌교회)(234회)	30 TV강단 승리(박규성)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김하나 목사
0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사무엘 6장 이규호 목사 50 힐링스토리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How Are You Feeling?(1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632회)	00 울포렐(278회)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설화 이은성 목사
04:00	00 TV사백예배 수영로교회 4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새문안 (이상학) 30 새벽을 깨우는 기도 50 GOODTV 새벽예배 이영훈	10 [말씀] 김주환 목사(허브교회)(10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549회) 고린도후서 25강 50 CBS 교회소식(1066회)	0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82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40 정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